

제42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출력, 접수, 액자제작까지

– 회원전, 사진작품전 대행

Artluxe® 총판

아트룩스는 첨단 소재 기업 존스미디어(주)의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 (실내,실외) 자외선/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패널 시스템입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 *

Artluxe®
프리미엄 포토패널 충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베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 500 원

EPSON

정품무한잉크
4x6 2,100장
출력기능
Wifi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50	~ A3w(13inch)	6색 70ml	495,000	용지 5만원 함께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개인용	L8050	~ A4w(8inch)		345,000	
A3 복합기	L8180	~ A3w(13inch)	6색 흑백특화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포토프린터&정품잉크 **Canon** **EPSON**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 할인

원목액자 Natural, Brown
11R=6,600원

사진용지 **Canon** **EPSON** **SINJI**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축제·행사 장비대여
1분 출력
촬영
증설풀력
현장에서 바로

제 23회

**나주배꽃·유채꽃
전국사진촬영대회**

(사)한국사협 나주지부에서는 사진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나주 배꽃과 영산강변의 유채꽃을 주제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 하오니 사진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대회일시▶ 2024년 4월 6일 (토) 우천불구
접수마감▶ 4월 30일 (당일소인 유효)

참가 요령

- ▶ 대회일시 : 2024년 4월 6일(토) 오전 10시 (우천불구)
- ▶ 대회장소 : 나주시 금천면 나주배박물관(오전), 영산강변 동섬 유채꽃밭(오후)
- ▶ 참가비 : 1인당 30,000원 (중식제공 및 작품집 증정)
- ▶ 참가자격 : 전국 사진 애호가
- ▶ 참가신청 : 당일 현장 접수 또는 전남 나주시 중앙로 20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
- ▶ 작품내용 : 나주배, 나주명소를 배경으로 한 배꽃이 있는 작품
행사 당일 모델과 나주배꽃, 나주배과수원 전경, 영산강변 유채꽃 촬영 작품
- ▶ 작품규격 : 컬러 또는 흑백 및 슬라이드 11" x 14" (장정불요), 디지털사진은 3000픽셀 이상
- ▶ 출품수량 : 2점 이상 4점 이내 (참가증을 작품 뒷면에 부착하고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화제를 명기할 것, 2점 이상은 복사 가능 / 참가증 없이 출품할 시는 4점까지 3만원)
- ▶ 접수처 : (우.58254) 전남 나주시 중앙로 20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
☎ 지부장 010-2605-4656 / 사무국장 010-9888-5600
- ▶ 접수마감 : 2024년 4월 30일(화) (당일소인 유효)
- ▶ 심사 : 2024년 5월 9일(목) (공개심사)
- ▶ 심사발표 : 2024년 5월 10일(금) 한국사진작가협회 (<http://www.pask.net>)
- ▶ 작품전시 : 2024년 6월 8일(토) ~ 10일(월) 3일간
- ▶ 시상일시 : 2024년 6월 8일(토) 오후 3시 / 나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시상 내용

- ▶ 금상 1점 : 나주시장 상장, 작품 매입비 100만원
- ▶ 은상 2점 : 나주시의회의장 상장, 작품 매입비 각 50만원
- ▶ 동상 3점 : 나주배농협조합장 상장, 작품 매입비 각 30만원
- ▶ 가작 5점 : 나주에총회장 상장, 작품 매입비 각 10만원
- ▶ 장려상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장 상장
- ▶ 입선 :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장 상장
(입선작은 총 출품작 수의 20% 이내 선정- 입상작 포함)

기타 사항

- ▶ 입상, 입선작 사협 입회점수 인정
- ▶ 작품의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에 책임이 있음
- ▶ 동일작 및 유사작품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
-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주최·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해 향후 5년간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도서출판 등을 할 수 있음
- ▶ 입상작은 작품파일을 5일 이내에 주최측에 제출 (ysk4656@hanmail.net)
-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 ▶ 입상작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
후원 : 나주시, 나주시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배원예농협, 나주예총

Contents

February 2024 Vol.523

Cover Story



홍이선(성남지부) - 둥지

- 03 **Headnote**
새해 우리의 바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향룡
- 08 **특집**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전 개최 - 김의배
- 38 **전시광고**
편린들이 만나 하나된 완전체
상상과 상상 - 박정숙(서울)
- 42 **전시광고**
제주 바당 - 그 생명의 빛
저 검은 바다가 세운 희망의 뒷에게 - 김두철(제주)
- 46 **전시광고**
일그려진 군중은 나를 비추는 거울
흐르는 삶 - 전철역에서 - 서경자(아산)
- 50 **전시광고**
창살에도 한복 춤사위에도 살아있다
우리의 멋 - 線과 色 - 박균희(의왕)
- 54 **지상전 01**
침묵으로 허락했던 시간들
영혼의 파노라마 Panorama of the Soul - 김정식(강동구)
- 58 **Photo Essay 01**
다시난 미륵사 서탑에서 무령왕릉까지
유네스코 문화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 - 백만종(서초구)
- 62 **지상전 02**
벗는 게 아니고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본성 '누드' - 이한성(청주)



08

38

42

46

새해 우리의 바램

회원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해지시길 바랍니다.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전을 시작으로 갑진년 대망의 청룡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말에는 올해 첫 이사회가 열려 23년 결산보고와 24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보고서 및 결산서를 통해 협회가 재정 건전성 유지에 가장 큰 도움인 것은 사진예술 아카데미의 사진작가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의 만족도를 더 높이고 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의 사진학과와 연계하여 교수 초빙 직강, 학점 교류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대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과정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이 많이 알려 주시고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숙원 중 하나인 '사진 진흥법'은 우리 사진인이 예술인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법이며 우리의 권익 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개선발전 위원회에서 1년 동안 활동을 마치고 나온 개선안을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국제사진 공모전, 촬영지도자 보수교육, 사진의 날 제정 등 많은 새로운 사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사진예술의 즐거움과 그 가치를 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향룡

February 2024 HANKOOKSAJIN 3

Contents

February 2024 Vol.523



50



54



66

66 Photo Essay 02

고귀한 신의 창조물 나래쉬고 이 땅으로
두 루루의 꿈 II - 김병철(원주)

70 자상전 03

밤새 대면하는 고독, 마침내 빛이 온다
기다림에 대하여 - 이광진(대구)

74 Review & Preview

위험한 곳 찾아 사람사는 냄새 '찰칵'
양승우 사진전-人間, 나와바리 - 김재훈

사진강좌

80 Photo Theory

젤라틴 바르고 티슈 입히고... 일곱 단계 공정
카본프린트 만들기 - 김정현

84 Travel destination

복돈 줄게 재앙되는 돈 줍지 말라
세뱃돈의 유래 - 최승언

협회소식

88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협회소식 및 분과위원회 소식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111 Gallery

박근희 개인전 외

정기구독 1년 10만원

개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한국사진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펴낸날 | 2024년 2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종

출판팀장 | 손석윤

출판위원 | 김명우, 박경서, 이점용, 최영태, 황길연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일정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페이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자인 종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42회 (입회점수 있음)

대한민국 사진대전

[접수기간]

2024년 4월 23일(화) ~ 4월 25일(목)

[접수시간] 10:00~18:00 도착분

- 출품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유해하지 않는 국내외 발표되지 않은 사진작품
- 출품료 : 1인당 100,000원 (공모전 부문) · 추천작가 부문 50,000원
- 작품규격 : 공모전 부문 / 추천작가 부문
- 1) 공모전 부문 : 작품은 간변 기준 50cm~77cm 사이의 규격으로 인화하여 대지(우드락) 부착하여 제출해야 함. 단, 대지(우드락) 포함 90cm를 초과할 수 없음.
- 2) 추천작가 부문 : 11" X 14" 인화지 작품(우드락 미부착) 1점을 출품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미발표작에 한함)
- 3) 공통사항 : 출품작과 동일한 내용의 8" X 10" 인화지 작품을 출품원서와 함께 제출요망.
- 4) 원서기입 제출시 필히 필수기재 항목을 모두 기입 후 제출요망.
- 5) 공모전 분야 출품시 출품작에 해당되는 부문별 분야를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해야 함.

○ 원서배부일 : 2024년 2월 12일(월) ~ 4월 23일(화)까지

○ 원서배부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다운활용, 지회 · 지부, 주요현상소 등

○ 작품접수기간 : 2024년 4월 23일(화) ~ 4월 25일(목) 10:00~18:00 도착분

○ 접수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본 협회 교육홀

○ 심사일시 : 2024년 4월 26일(금)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결과발표 : 2024년 4월 30일(화)

○ 시상내역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대상 1점 추후공지

최우수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및 훈장형 상판

우수상 2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및 훈장형 상판

특선(수상작품의 10%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훈장형 상판

입선(출품작수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추천작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훈장형 상판

※ 기타(유의) 사항

○ 출품작 중 심사발표 후 낙선작 반출은 회망자에 한해서만 10일 이내 반출 가능.

- 소속 해당 지회(도지회), 직접수령, 폐기만 진행예정(포장 및 택배비 부과 될수 있음)
(단, 출품시 접수한 8" X 10" 인화지는 반출처리 하지 않음)

- 기간 내 미수령시 폐기처리 됨.

○ 작품집은 구매 신청자에 한해 계좌입금 확인(전시 종료) 후 개별 발송예정임.

○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 사용권을 통해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 기타(유의) 사항

-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은 작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문의사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02-2655-313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연숙_북소리_제41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작

▶ 공모부문 출품시 유의사항

출품작의 출품 부문을 출품서와 출품표에 기재 접수하여야 하며
미기재 시 기타로 분류됩니다.

- 공모 부문

1. 인물 · 다큐 / 2. 풍경 · 생태 / 3. 디지털 창작 및 특수사진 /
4. 관광 · 스포츠 / 5. 기타

▶ 출품료 입금계좌

국민은행 878301-01-264650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시 출품자 동일 입금자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작 전시안내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있음)

○ 개전 및 시상일시 : 2024년 6월 18일(화) 15:00

○ 전시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

○ 전시기간 : 2024년 6월 18일(화) ~ 6월 22일(토)
(단, 마지막일 관람은 오후1시까지만)

■ 주최 · 주관  한국사진작가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제1회 PASK 국제 사진 공모전

KOREAPASK2024

응모분야

(5개 분야)

- 1) Open Color(칼라 부문)
- 2) Open Monochrome(흑백 부문)
- 3) Nature(자연 사진 부문)
- 4) Photo travel(여행 사진 부문)
- 5) Portrait, Life(인물, 생활 사진 부문)

출품작품수 각 부문당 4점씩 총 20 작품 출품 가능(기준의 수상작 출품 가능)

작품 규격 가로 1,920픽셀 이하, 세로 1,080픽셀 이하, sRGB, 300dpi, 2M 이하

출 품 료 외국인(30\$, Paypal로 입금), 한국인(40,000원 국내은행 입금, 또는 페이팔로 30\$ 결제)

수상 내 역 각 분야 별로 금, 은, 동, 가작 등등 모두 180 작품의 입상 + 최고급 삼각대 2세트

공모전 시간표

작품 접수 마감 2024년 3월 10일

심사 일 시 2024년 3월 13 ~ 27일 (온라인 심사)

결과 발표 & Report Card 발송 2024년 3월 31일

작품 전시 2024년 12월 4일~ 12월 8일

심사위원

6인(알파벳 순, 대한민국 3인, 외국 3인)

Barbara Schmidt (Germany) : MPSA2, EFIAP/b, GPU CR4 VIP4 Zeus

CHUN-WOO LEE (이춘우, 대한민국) : MPASK(한사전 추천작가), EFIAP/s, PPSA, GPU VIP4

JEF LEMMENS (Belgium) : ESFIAP, EFIAP/d3, GMPSA/b

JEONG-SOO KO (고정수, 대한민국) : EFIAP/b, PPSA, GPU CR2

SOO-YOUN YI (이수연, 대한민국) : MPASK(경기도 사진대전 초대작가)

Vladimir Jovanovski (North Macedonia) : DIAAP, MPSA, KMF NPUM, GPU CR3, RISF-5

국제적인 사진 단체에서 승인

FIAP(2024/118) : 국제사진예술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 Art Photographic)

GPU(L240010) : 국제사진연합(Global Photographic Union)

IAAP(2024/009) : 국제예술사진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 Photographers)

PASK(2024/001) : 한국사진작가협회(The Photo Artist Society of Korea)

상세 내용 및 출품요령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

작품접수 사이트 : <https://theiaap.com/e/pask/>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4기 모집요강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신청 자격요건

1. 비회원의 경우 : 본 협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2. 회원의 경우 : 사진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모집인원 : 50명 이내(선착순 마감)

교육과정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대면 및 온라인 강의 진행
: 1학기, 2학기 과목은 최종 교육과목 조율에 따른 결정 후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예정

수강기간 (단, 협회 상황에 따라 개강 및 종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개강 3월 22일(금) ~ 7월 5일(금) (단, 본 협회 긴급 행사 시 변경될 수 있음)

2학기 개강 8월 23일(금) ~ 12월 6일(금)(마지막 수업)

졸업전시회 12월 11일 ~ 17일 (12월 10일_설치 / 11일_개전식 및 수료식 / 17일_철수)

수강방법 및 수료조건

사진예술 아카데미 강의실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졸업작품전시 필수 참여, 출석 80% 이상 참여

학기별 수강료 : 1학기당 일금 3,000,000원 (2학기 총 6,000,000원) 카드납부 가능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기한 : 2024년 3월 21일까지 전화문의 : 02-2655-3136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교수진 소개

조주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ccp 교수)

김정현 교수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교수)

정명오 교수 (일본 구주산업대학 대학원 M.F.A 석사, 계원예술대학교 사진학과 학과장 교수)

유병용 교수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진나 대표, 인천재능대학교 평생교육원 초빙교수)

배택수 교수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서울교육대학교 사진아카데미 교수)

양양금 교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과 교수)

이승자 교수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석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윤은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과 교수)

여상현 교수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인천재능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아카데미 교수)

류민형 교수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공과정 박사수료, 경성대학교 교수)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4기 강의장소 안내

이론수업

1.목동, 예술인회관 9층 강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2.대전. 대전예술가의 집 정문 맞은편 건물 4층 강의실(2학기 크리틱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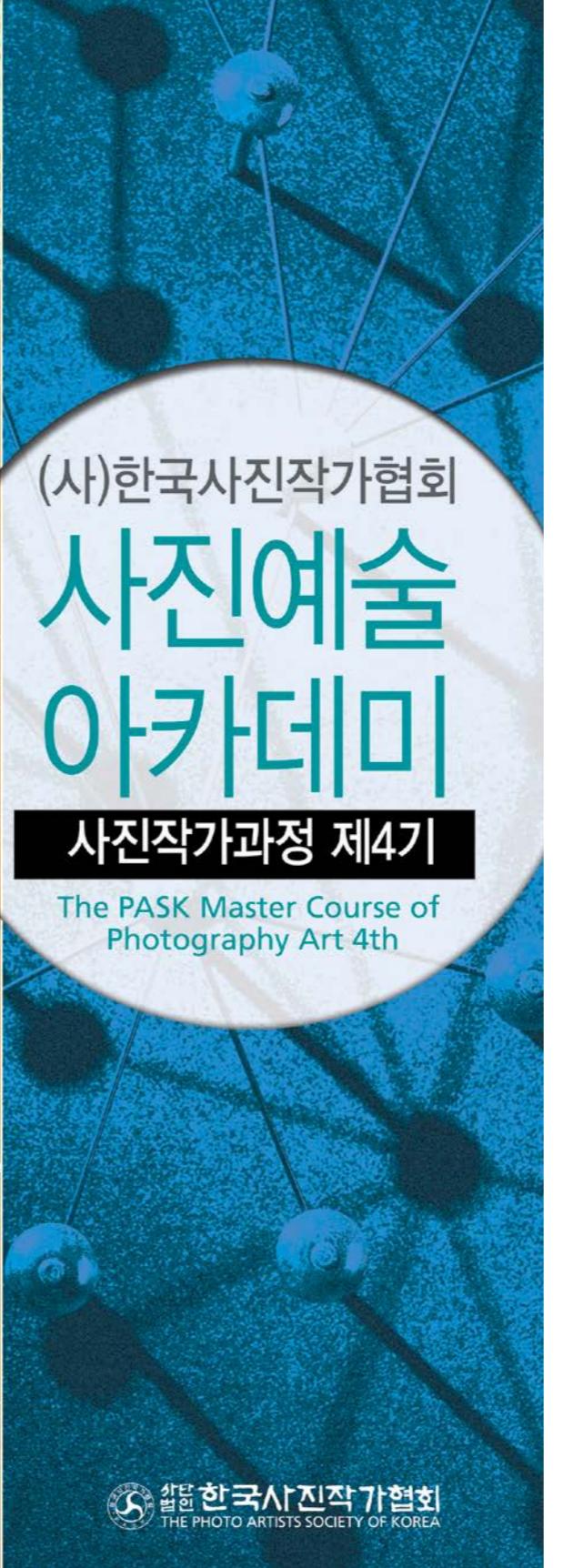
실습수업

1.하남. 원스튜디오 / 악산. 그라포스사진교육원 / 3.계원예술대학교 사진학과 종합암실

4.서울. 258lab 스튜디오 / 5.출사.(상황에 따라 조율)

이론수업 시 부득이 대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병행(zoom)

모든 강의 종료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수강 가능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전 개최

글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자문위원), 사진_오간호(홍보위원회 위원, 보도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아카데미에서 사진작가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받은 작가들이 제3기까지 배출 되고 있다. 한국사진의 미래이자 희망인 사진작가들의 졸업식이 1월 26일에 있었다.



개전식 행사 후 테이프커팅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외 내빈과 외빈들

지난 1월 10일(수) 오후3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3F 전시실에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전이 김요한 교육부장의 사회로 개최했다. 식전 행사로 김대중(청주지부장) 3기 졸업생이 '강 건너 봄이 오듯'과 '그 집 앞'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번째로 이기범(흑백사진분과위원장) 3기 졸업생이 기타를 연주하며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와 '사랑으로'를 불러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윤홍선 사진예술 아카데미 3기 회장이 내빈을 소개했다. “본 협회 유수찬 이사장, 선종백, 최자열, 이향룡, 김시록 부이사장, 이덕만 감사, 김의배 홍보위원회위원장, 문제민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주은 교수, 배택수 상임이사, 양양금 교수, 정명오 교수(계원예술대 사진예술학과장), 여성현 교수, 윤은숙 교수, 이승자 교수, 이원철 교수, 류민형 교수, 유병용 교수, 강돈영, 김명옥, 백승의, 신경애, 이성록, 이연숙, 최연근, 최임순, 김옥진, 오만태, 이명수, 황의출, 김정금, 김서윤, 이막래, 박해섭, 이점용, 최영태 이사, 흥일영 광주지부장, 임효례 군포지부장, 이동규 예산지부장, 김혜숙 부천지부장, 엄태수 안성지부장, 박용하 안양지부장, 흥창희 여주지부장, 박승호 용인지부장, 허승행 포천지부장, 이상영 서천지부장, 김진호 국제교류분과위원장, 이

운재 여행사진분과위원장, 이기범 흑백사진분과위원장,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제2기 아카데미 김두철 회장, 김형준 사무처장, 김요한 부장, 사진예술 아카데미 1·2기 수료생들.” 이후 김요한 부장의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전 경과보고가 있었다.

유수찬 이사장의 개전 축하 인사를 했다.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이 3기인데, 1기, 2기 때 크게 감동했는데 3기 때엔 더 많이 감동했습니다. 우리 협회가 사진 관련 단체 중에서 제일 큰 집이 돼 있어서 여러분으로 대우도 받고 저 자신도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전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주제로 주제전을 하는데,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졸업식도 학교 졸업식과 똑같이 학사 모를 쓰고 사진도 찍고 축제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전을 총괄한 조주은 교수 인사말이 이어졌다. “우리 사진예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셨던 많은 작가님이 앞으로 한국 사진계에서, 세계 예술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1기, 2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식 개전식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식전 행사로 기타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이기범 흑백사진분과위원장

개전식 전 졸업작품전 설명을 하는 조주은 교수



식전 행사로 노래를 부르는 김대중 청주지부장

축사를 하는 사진작가과정 제1기 회장 백승의 이사

졸업전시 개최 축사를 하는 조주은 교수



졸업전시 개최 축사를 하는 정명오 교수

축사를 하는 사진작가과정 제2기 대표 김두철 회장

기 선배님들이 잘 닦아놓은 길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작업해 주시고 발전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유수찬 이사장님을 비롯해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먼저 하셨던 작가님들과 교수님들, 협회의 많은 분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계원예술대학교 정명오 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사진은 전시로써 완성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방대한 조직, 여러가지 의미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진이 우리 인간 소통과 문화예술의 중심축이 되는 것 이 현재 상황입니다. 21세기 AI 시대에. 그래서 24년에는 사진이 한국 문화예술의 중심축이 돼야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저변에 이렇게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많은 활동과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문화예술의 한 축이 되는 사진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K-팝, K-푸드, K-컬처로 불리고 있는데, 24년에는 K-포토그래피로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진이 구호가 종횡무진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종횡무진 활약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예술 아카데미 1기 백승의 회장 축사를 하였다. “저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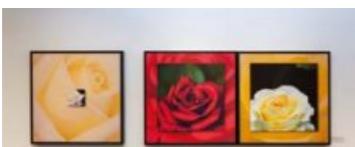
3년 전 21년에 1기를 시작했을 때, 전시회에 오셨던 분들이 조주은 교수님과 양양금 교수님, 두 분이 해주셨는데 전시계의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아카데미 1기의 전시가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3기의 졸업전은 더욱 승승장구해서 이사장님의 교육 아카데미에 대한 열정도 여기에 담겨 있고지도 교수님들의 철학, 작가님들의 개인적인 독특한 사고와 새로운 방법으로 주제전을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카데미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진작가협회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예술 아카데미 2기 김두철 회장 축사와 함께 사진작가과정 제2기 회원들이 모두 나와서 함께 인사했다. “이사장님께서도 많이 수고하셨고, 3기의 작품도 많이 업그레이드됐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봐서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졸업전 개전식 이후 내빈들이 함께 테이프커팅이 진행되었으며, 제3기 졸업생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과 졸업전 작품 관람을 하며 행사를 마쳤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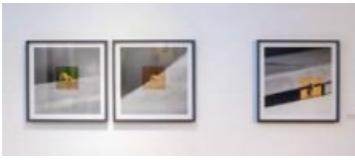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전
The PASK Master Course of Photography Art
3rd Graduation Exhibition



©강덕기



©김경한



©김서운



©장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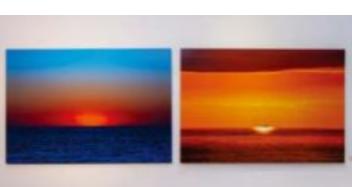
©강재연



©김대수



©김시욱



©정인호



©국형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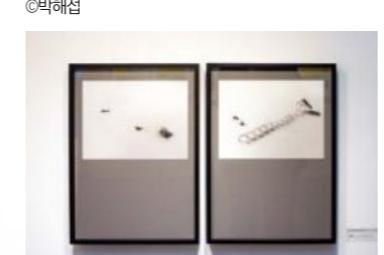
©김효경



©김대중



©김윤설



©박종길



©김형숙



©서미자



©서선옥



©서선옥



©허성숙



©최영태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전
The PASK Master Course of Photography Art
3rd Graduation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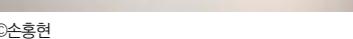
©이호근



©신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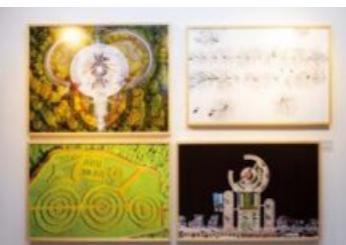
©양희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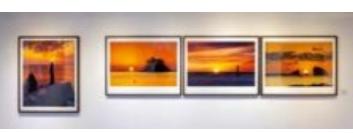
©손홍현



©연도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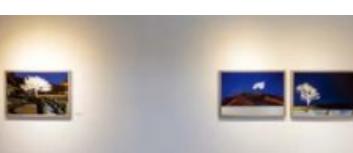
©오건호



©오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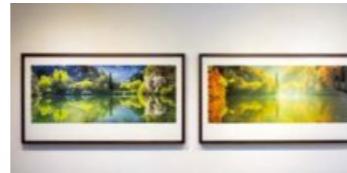
©염미영



©흥정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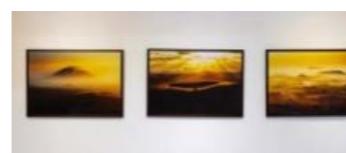
©윤유원



©장철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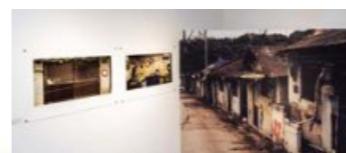
©윤홍선



©황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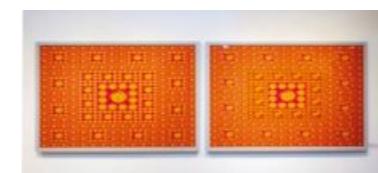
©이은순



©장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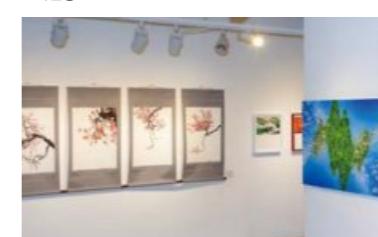
©이기범



©이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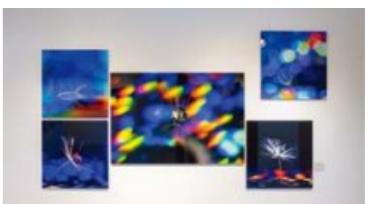
©이점용



©이혜경



©이기복



©이기복



©이기복



©이기복





사진예술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졸업 빛나는 졸업장을 사진작가님께

글_윤홍선(사진작가과정 제3기 회장), 사진_오건호(홍보위원회 위원, 보도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생들 단체 기념촬영

2024년 1월 26일 목동 한국사진작가협회 9층 회의실에서 본 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김요한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식에는 유수찬 이사장, 김시록 부이사장, 조주은 교수를 비롯해 47명의 제3기 졸업대상자가 참석하여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유수찬 이사장은 졸업식에 앞서 인사말이 있었다. “앞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미래를 짚어지고 나아가게 될 사진예술 아카데미가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더 발전하고, 끊임없는 탐구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 시작되는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4기 후배들에게도 선배로서의 관심과 화합을 당부해 주길 기대하며 오늘 졸업하는 제3기 졸업생들의 앞날에 빛나는 시간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라고 응원과 격려를 해 주었다.

이후 김시록 부이사장은 축사로 “지난 일 년은 소중한 시

간들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원할 것이며, 사진예술 아카데미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축사를 하였다.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윤홍선 회장은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였다. “본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무사히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명강의와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예술 교육을 받으면서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유수찬 이사장님과 문제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여덟명의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졸업생 일동 기념촬영 후 개별 학사모 촬영을 끝으로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식을 마쳤다.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는 사진작가과정 제3기 회장 윤홍선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생들 단체 기념촬영



ISDT

소니 카메라 배터리용 초고속 충전기



ISDT NP2

90분

QC 3.0 고속충전

※ 고속충전시, 충전시간은
충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3종류 대응

NP-FZ100, NP-FW50, NP-BX1, 3종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멀티포트



컬러 LCD 모니터

충전 상태를 상세하게 표시하는
컬러 LCD 모니터 탑재

PHOTOCLAM

PHOTOCLAM

PTC-1645M WR



초고탄성 카본 삼각대

Haida®

하이다 마그네틱 필터



자석으로 빠르고 쉽게 결합하는 필터

F-stop

듀라 다이아몬드 백팩



틸로파 50L 백팩 아조나 37L 백팩
듀라 다이아몬드 듀라 다이아몬드

CAVER®

BV-65



영상용 카본 삼각대
유압식 비디오 헤드

CAVIX®

PH-720A



720° 파노라마 짐벌 헤드

SUNWAYFOTO

CR-3015A



360° VR 파노라마 헤드

DigitalFoto

타노스 SE



원핸드 짐벌 서포트 시스템 하네스

MOZA

SLYPOD PRO



가볍고 무빙이 안정적인
전동 슬라이더 모노포드

ISDT

NP2 스마트 충전기



듀얼 스마트 고속 충전기
NP-FZ100 / NP-FW50 / NP-BX1
충전 가능

NEEWER®

New Launching 2024년 혁신적인
니워 라운드 헤드 스피드 라이트

니워 코리아 런칭 기념
사전예약
라운드 헤드 스피드 라이트

NEW Ver.2
Z2



직관적인 UI
한눈에 쑥 들어오는
3컬러액정화면



TCM
측면부의 TTL
M모드 변환 스위치



2개의 모델링램프
모델링램프기능은 기본
인물캣츠라이팅 까지

사전예약 사은품 144,000원 상당

니워 코리아 Z2 를 사전예약구매 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니워 QPRO 무선 동조기
(니워코리아 판매가 8만원 상당)



니워 Z2전용 마그네틱 액세사리 키트 CRM2
(니워코리아 판매가 7만원 상당)

제품 문의 02-775-6681

BENRO®
Let's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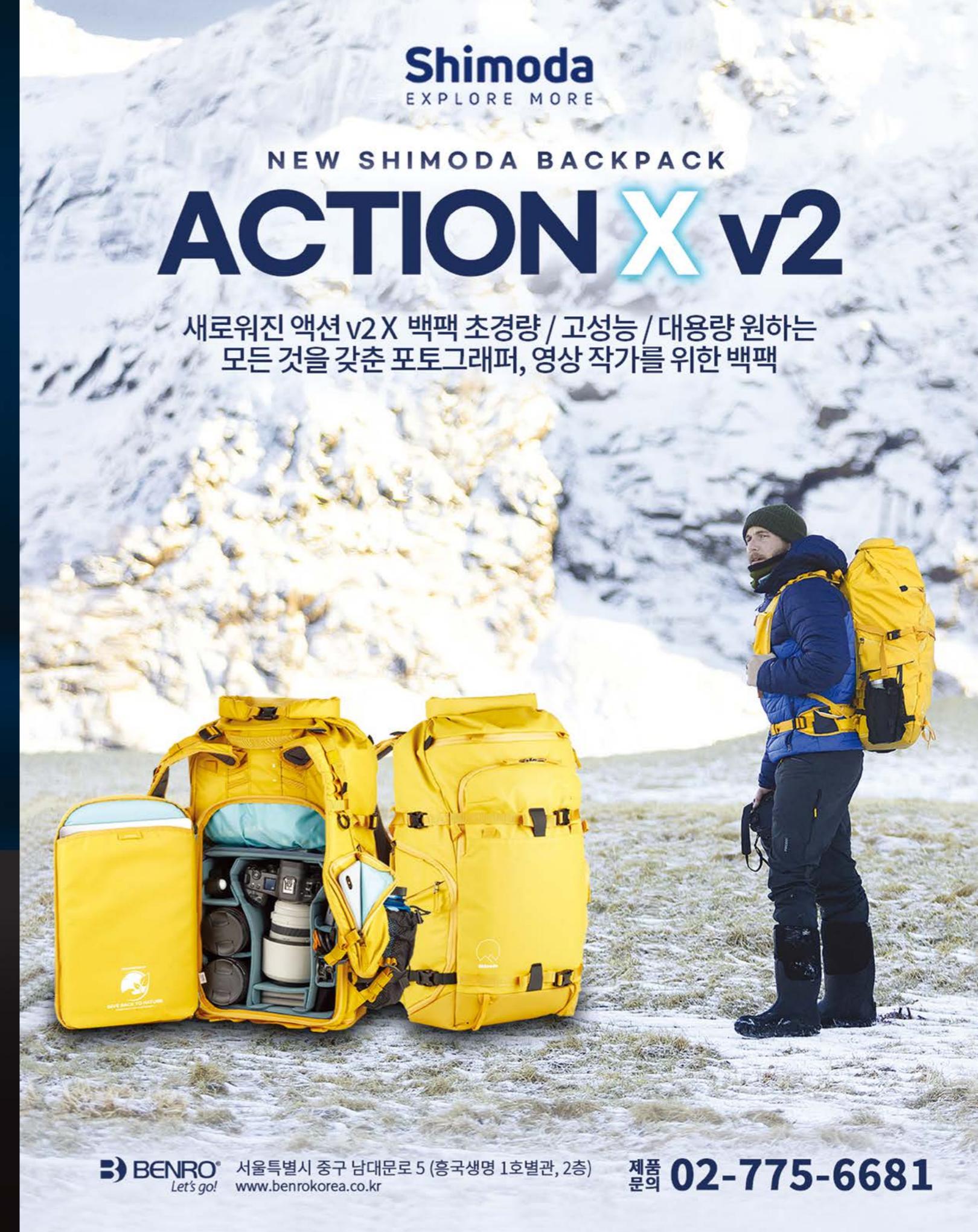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Shimoda
EXPLORE MORE

NEW SHIMODA BACKPACK

ACTION X v2

새로워진 액션 v2 X 백팩 초경량 / 고성능 / 대용량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포토그래퍼, 영상 작가를 위한 백팩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 문의 02-775-6681



아직도 무거운 삼각대만 들고 다니시나요?

삼각대 리뷰전문작가 15명이 극찬한 제품
2023년 벤로 여행용 삼각대 **판매율 1위**

벤로 사이언버드 삼각대

깃털처럼 가볍지만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1.08kg
헤드포함무게

벤로코리아만의 특별한
기술력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썬바래기후드
PRO-SYSTEM

자석 원형필터 + 사각필터 다 사용이 가능한



64,000원
사협회원한정
 공동구매가▶ **550,000원**

2024.02.24 까지

상품구성



1. 썬바래기후드
2. 자석 필터용 후드 어댑터
3. 자석 필터용 렌즈 어댑터
4. 사각필터 자석 조립용 부품
5. 후드 인조가죽파우치
6. 어댑터 파우치
7. 자석 어댑터 링 82mm
8. 일반 스텝다운링 82-77
9. 일반 스텝다운링 82-72



2024 레오포토 기어헤드 신제품

3D&4D 개별 기어 모션으로 더 정밀해진 움직임과 프로페셔널해진 성능

GR-2

with QP-70N

360° 파노라마, 분리형 컴팩트 디자인, 낮은 높이 최상의 안정성

패닝 클램프 직경 60mm 베이스 직경 60mm 제품 높이 42mm

나사 규격 3/8" 최대 하중 20kg 제품 무게 300g



G20

with QP-70N

±15° 틸트 이중 축 조절, 360° 파노라마, 3방향 개별 제어

패닝 클램프 직경 75mm 베이스 직경 75mm 제품 높이 81mm

나사 규격 3/8" 최대 하중 20kg 제품 무게 680g



G4 PRO

with GR-2+NP-60

115°/-50° 틸트 이중 축 조절, 360° 파노라마, 3방향 개별 제어

패닝 클램프 직경 40mm 베이스 직경 60mm 제품 높이 130mm

나사 규격 3/8" 최대 하중 20kg 제품 무게 820g



선명한 은하수 촬영 장비, 적도의

사이트론 재팬 나노트래커2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로 간편한 별 추적
아름답게 펼쳐지는 밤 하늘의 세계를 사진에 담다



SIGHTRON JAPAN INC.
nano.tracker II

LAYER STRUCTURE

레이어 구조도



① Artluxe® Face film

3H 강도로 하드코팅된 고광택 필름

② Artluxe® Imaging film

생생하고 선명하게 표현되는 고품질의 인화필름과
EPSON 정품 포토잉크를 사용한 고해상도 프린팅

③ 알루미늄 복합패널

티타늄 색상으로 표면처리된 알루미늄복합패널

④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을 패널 뒷면에 덧붙여 두께감을
더하고 장기 내구성을 높여줌-벽걸이용

출력 전시계획-

아트룩스™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라세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조명반사를 줄여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RYSTAL ART 크리스탈아트

아크릴보다 건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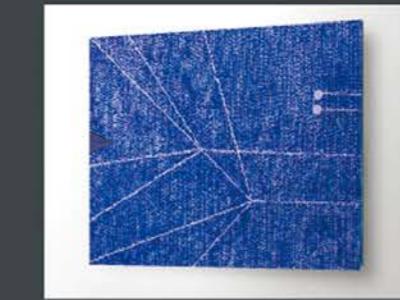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SUREVUE 수어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PEBrICK 페브릭

모래알같은 잔잔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Artluxe®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베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사진작가의 입문 두진아트와 함께...

전국 사진공모전 접수대행

공모전 사진인화 (단순인화) 11R-11x14인치 = 3,300원 (장당)

공모전 사진인화 (정밀보정) 11R-11x14인치 = 4,400원(장당)

한국사진대전 33,000원

(사진인화+매트(흰색&검정)+배접(휘거나 뒤틀림 변형이 없는 포맥스
8R-8x10 사진포함)

참조: 휘거나 뒤틀림이 심한 저가 우드락 배접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지회 지부 사진대전 사진인화 16R-16x20 인치=9,900원

16R-16x24 인치 = 11,000원

20R-20x24 인치 = 12,100원

20R-20x30 인치 = 13,200원

공모료 접수비 별도

박스포장, 택배비: 5,000원 별도

지부봉사 장수사진 액자 제작+인화+코팅 11R-11x14인치=보급형. 12,000원

고급형. 16,000원



두진아트 공모전 쇼핑몰



두진아트 전시액자 쇼핑몰



두진액자 인터넷 쇼핑몰

사진전시실적 업계 1위

궁극의 사진표현력, 미세한 디테일까지...

두진아트만의 미디어별 정밀보정 프로파일 적용

이것이 진정한 아트다!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전시 실적 업계 1 위 두진아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동호회 그룹전 개인전 사진인화&액자제작 납품실적 업계1위

TV홈쇼핑 액자판매실적 업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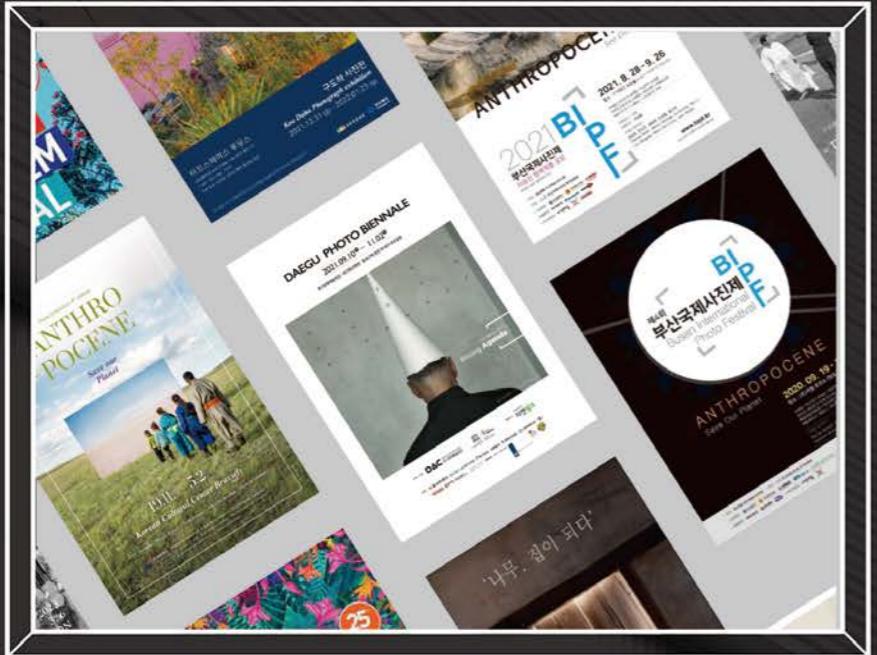
1층 액자공장 2층 전시장 사진출력실 사무실



arttre

Arttre. No.1 in the industry
We are with a photographer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시회를 준비(출력,액자)하는
작가님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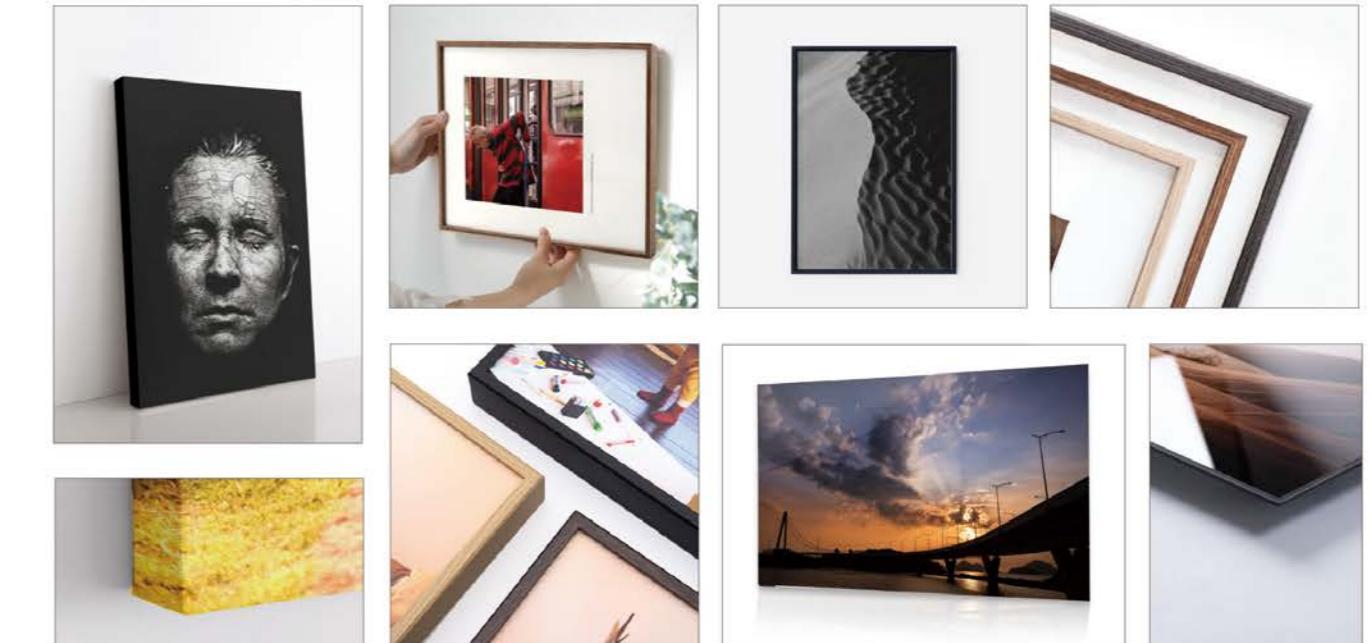


Arttre collaborates with photographers on photo exhibitions.

아뜨레는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진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www.arttre.co.kr



액자사업부_디자인

앨범사업부

검품/포장

노리터보드

이덕만의 특수촬영 전문과정 모집

– 차별화된 프레임 속의 풍경을 담아내다 –

□ 2024년 사진예술 아카데미 특수촬영 전문과정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강좌 개요

- 많은 사람들이 풍경사진을 이름난 포인트에서 촬영하기에 필연적으로 비슷한 결과물을 얻게 된다.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차별화된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선 특수촬영을 통해 나만의 기법으로 이미지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 색다른 촬영을 원하는 작가들을 위한 특수촬영을 주제로 1학기는 이론중심교육, 2학기는 촬영실습위주로 진행된다. 과정에서 저속촬영, 틸팅, 다중 핸드 촬영, 카메라 저속 HDR, 사계의 은하수 촬영, 특수한 빛 갈림 촬영 등 다양한 촬영기법을 강의한다.

○ 강좌 대상

: 일반사진 애호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 및 회원

○ 모집인원 및 강의시간

- 1) 모집인원 : 50명 이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단, 모집인원 미달시 취소 또는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2) 강의장소 :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협회 강의실 (zoom 온라인 강의 병행)
- 3) 강의기간 : 4월 2일 개강 ~ 6월 25일 종강 (매주 수요일 수업, 공휴일 휴강, 협회 사정상 수업일 변경시 안내예정)
- 4) 강의시간 : 1주 4시간 (13:00 ~ 16:50), 총 12주 과정 48시간
- 5) 문 의 : 02-2655-3136 / 010-9785-3130(문자만 수신) / pask@pask.net
(접수문의 시 문의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 1) 수강료 : 학기당 40만원
- 2)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 3) 입금기한 : 2024년 4월 2일 정오(수업 전)까지 (카드납부 가능, 계좌입금만 가능, 영수증 발급 가능)

○ 강좌 수강 혜택

- 1)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에게는 협회 입회 시 7점의 입회점수 부여
- 2) 협회 회원인 경우 200점 공모전 심사자격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수료증을 통해 점수 인정
- 3) 자체 제작 교재 제공
- 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명의 수료증 발급
- 5) 협회와 관련된 사진 기자재 업체의 제품구매 시 할인 적용

○ 수강생 준비물 : 카메라, 필기도구, 노트북 등 수업 일정에 따라 안내

□ 특수촬영 전문과정 지도 이덕만 강사 약력

- 현) 한국사진작가협회 제30대 본부 감사 현)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현) 경기도사진대전 초대작가 현) 남양주 평생교육원 및 남양주 문화원 디지털 사진 강사

PHOTOGRAPH를 위한 PHOTOSHOP의 기초과정

– 포토샵을 이용한 디지털사진 다양한 편집과 수정 기초 강좌 –

□ 2024년 사진예술 아카데미 PHOTOSHOP 기초과정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강좌 개요

- 본 과정은 Adobe PHOTOSHOP 을 이용한 디지털사진의 다양한 편집과 수정 기술을 다루는 강좌이다.
- 총 12주(36시간) 과정으로 1주당 3시간 수요일 대면 및 비대면 줌강의를 통한 이론과 실습으로 병행 강좌를 진행한다.
- 엑셀, 워드, 한글 등 기본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본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촬영한 디지털사진 및 아날로그 사진의 스캔 및 다양한 디지털 화상이미지를 이용한 편집, 수정에 대한 기초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강좌 대상

: 일반사진 애호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예비회원 및 회원

○ 모집인원 및 강의시간

- 1) 모집인원 : 50명 이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단, 모집인원 미달시 취소 또는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2) 강의장소 :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협회 강의실 (zoom 온라인 강의 병행)
- 3) 강의기간 : 4월 3일 개강 ~ 7월 10일 종강 (매주 수요일 수업, 공휴일 휴강, 협회 사정상 수업일 변경시 안내예정)
- 4) 강의시간 : 1주 3시간 (13:00 ~ 15:50), 총 12주 과정 39시간 (대면수업시 1시간 보강 수업 진행가능)
- 5) 문 의 : 02-2655-3136 / 010-9785-3130(문자만 수신) / pask@pask.net
(접수문의 시 문의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 1) 수강료 : 학기당 40만원
- 2)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 3) 입금기한 : 2024년 4월 3일 정오(수업 전)까지 (카드납부 가능, 계좌입금만 가능, 영수증 발급 가능)

○ 강좌 수강 혜택

- 1)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에게는 협회 입회 시 7점의 입회점수 부여
- 2) 협회 회원인 경우 200점 공모전 심사자격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수료증을 통해 점수 인정
- 3) 자체 제작 교재 제공
- 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명의 수료증 발급
- 5) 협회와 관련된 사진 기자재 업체의 제품구매 시 할인 적용

○ 수강생 준비물 : laptop(노트북) 또는 PC(데스크탑) 최소 필요사양-기본사양 및 추가사양은 협회 담당자 문의요망, PHOTOSHOP 프로그램 설치(개강시 설명 진행), 필기도구 외

□ PHOTOSHOP 기초과정 지도 김용열 강사 약력

- 현) 한국사진작가협회 특수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현) 사진교육 지도자
현) 사진과 포토샵 대표, 사진연구회 대표

신탁등재는 내 사진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신탁자 등재 절차에 따라 등록이 가능!

본 협회는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진저작권자인 본 협회 회원들의 사진저작물 침해 방지의 최선은 신탁등재로 사진저작물 침해시 최선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협회 회원만으로도 신탁등재를 희망하는 누구든 신탁등재만으로도 신탁자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탁등재 안내를 드리오니 순서에 따라 등재시 사진저작물 권리침해 방지 및 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탁등재 등록이 가능하며, 사진저작권자로서 신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저작권 신탁등재 전산화 등록방법

1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1

- 본 협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창에 회원번호, 비밀번호 로그인 실행
- 하단 사진저작권자 신탁등록 베너광고 클릭

2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2

-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이미지뱅크 신탁등록 이동
- 신탁등재 개인정보 및 약관 숙지 요망
- 최종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오른쪽 확인 키 클릭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3

- ①~⑤ 번순대로 필수 입력사항
- 단 ⑥번 필명은 선택사항
- ⑦번 소속단체는 고정 값
- ⑧~⑩번 입력 진행
- ⑪번은 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필수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4

- ①번 해당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②번 주소검색 클릭 후 주소팝업 검색창에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클릭
- ③~④번 순서대로 입력 진행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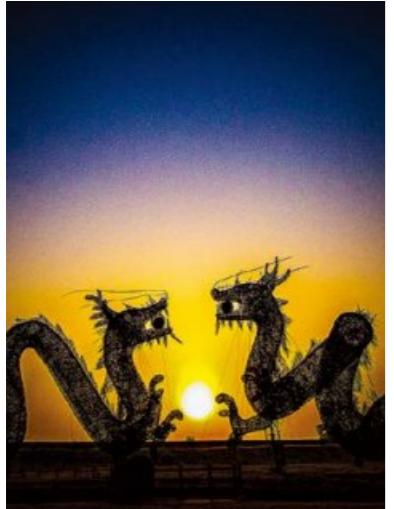
- ①번 계좌번호 입력
- ②~③번 해당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미지 데이터 첨부
- ④번 250자 이내의 개인 프로필 입력, 약력사항 위주
- ⑤번 모든 입력사항 완료 후 가입하기 클릭

* 신탁등재 회원가입이 완료 후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최종 등록승인 절차 완료 통지 후 코라 이미지(www.korraimage.com)로 접속 로그인 후 사진저작물등록이 가능합니다.

-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저작권자 등록 신탁등재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필수 기입 사항 입력 후 가입신청
- [관리자] 신청확인 후 기입정보 토대로 입회신청서 및 저작권위탁 신청서 각 1부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 (메일 미확인 시 작가분 연락처로 문자안내 및 유선 안내 드립니다.)
- [작가] 각 신청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관리자에게 회신
- [관리자] 확인 후 정회원 승인 (확인문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 070-4265-1500**)
- [작가] 코라이미지 사이트(www.korraimage.com) 저작물 등록 가능(최대 5개) 이후
추가 등록물은 본 협회 사진저작권 담당자에게 전달 또는 문의요망 (02-2655-3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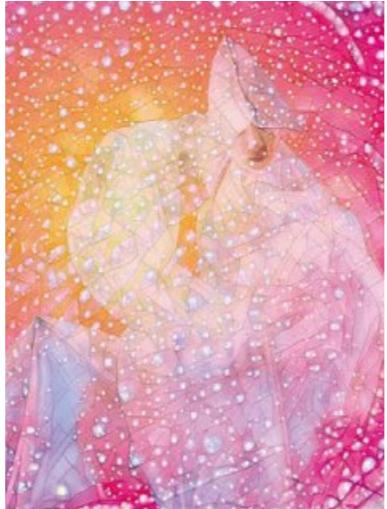
+

월간 한국사진 2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 김 정 환 · 龍의 氣像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태양을
움켜쥘려고 하는 형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일출의 희망과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황 혜 경 · 환생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AI 시대를 접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사진을 들여다 보기 시작한다.
배경과 색상 조절은 AI의 힘을 빌어서 표현하였다.



· 김 영 수 · 소나무



· 손 한 성 ·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우리의 오랜 민속놀이 중의
하나입니다. 전에는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연날리를 하였지만, 지금은
시기에 상관없이 행하고 있으며, 연의 종류와
모양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새해 희망을 실어 하늘 높이 연을
날려봅시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만을 배부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궁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한 개선된 표지투고 선정 방식

1.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해 본 협회 회원이면 참여가능 / 2. 표지가 세로도판인 관계로 세로형 작품 및 작가노트 충실 요망

3. 투고작 심의 – 이사위원회 출판팀 심의 선정

※ 단, 최종 선정된 표지 원고는 월간지 작업시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될 수 있음. (작품원본 변형을 원치 않을 시 투고 고려요망)
※ 단, 촬영데이터 (Capture Date & Time, Exposure Data S/F Camera, Lens, 장소, Focal Length, Filter, White Balance Temp, Develop Data, Merge(합성) 내용, Panorama, Bracketing(HDR, WB, Focus), Interval, Time lapse, Inverted(반전), Tilting, Zooming, Panning, 장노출 등
모든 촬영기법 및 현상기법과 내용을 표지투고시 공개해야 함. 선정작에 한해서만 상세사항은 기재되며 미선정작은 공개되지 않음.

· 월간 한국사진 표지원고 투고 방법

웹하드(www.webhard.co.kr) – 아이디 kpask / 비밀번호 kpask 접속 후 → 올리기 전용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 투고자 성명 풀더 생성 후
작품2점 + 작품명, 작가노트, 촬영데이터 및 이력사항(연락처) 업로딩 요망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마감일 전월 20일 마감입니다.



제휴사 특가 상품 안내



유효기간 : ~2023.11.30 (객실 기준)

패키지 구성

객실 + 조식뷔페 (하반) + 밤왕산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 워터파크 오후권 또는 애니포레

BIG 9 할인권

케이블카 40%, 워터파크 40%, 극락정원권 20%, 런던랜드 20%, 뮤지컬 20%, 대문인코스터 20%, 텀비브 15%, 몬스터카리 10%, 더살리 10%



예약사이트
바로가기

2인 PKG 119,000원 76%

3인 PKG 159,000원 73%

4인 PKG 199,000원 70%

이용안내

- 제휴사링크 접속 <https://weare.pscms.co.kr/staff/mona/product>
- 제휴사 ID, 인증번호 입력 (ID : YP28 / 인증번호 : 1190519)
- 상품 결제하기
- 구매 후 문자(카카오톡)수령, 카카오톡 내 URL 예약 링크 접속
*2달 이내 날짜만 예약 선택 가능
- 객실 예약하기 클릭 후 이용일 / 객실 선택
- 예약 확정 번호 문자 수신
- 해당일에 프린트 방문 후 이용

환불 및 만내사항

- 구매 후 미사용시 유효기간 내 취소신청 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 상품 환불 및 취소는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고객센터 02.6925-3193 / 운영시간 : 월~금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 해당 판매가는 호텔 디렉스, 타워콘도 18타입 기준 요금이며, 객실 증평 및 주말은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추가 요금은 체크인 시 프린트에서 결제 해주시면 됩니다.

■ 패키지 구매

용평리조트 계류사

제휴사ID : YP28

제휴사 인증번호 : 00000000

구매자 이름

구매자 전화번호

결제방식 : 신용카드

선택한 티켓을 구매 하시겠습니까?

결제하기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양천우체국

07995

30만원으로
전시초대도, 사진작품도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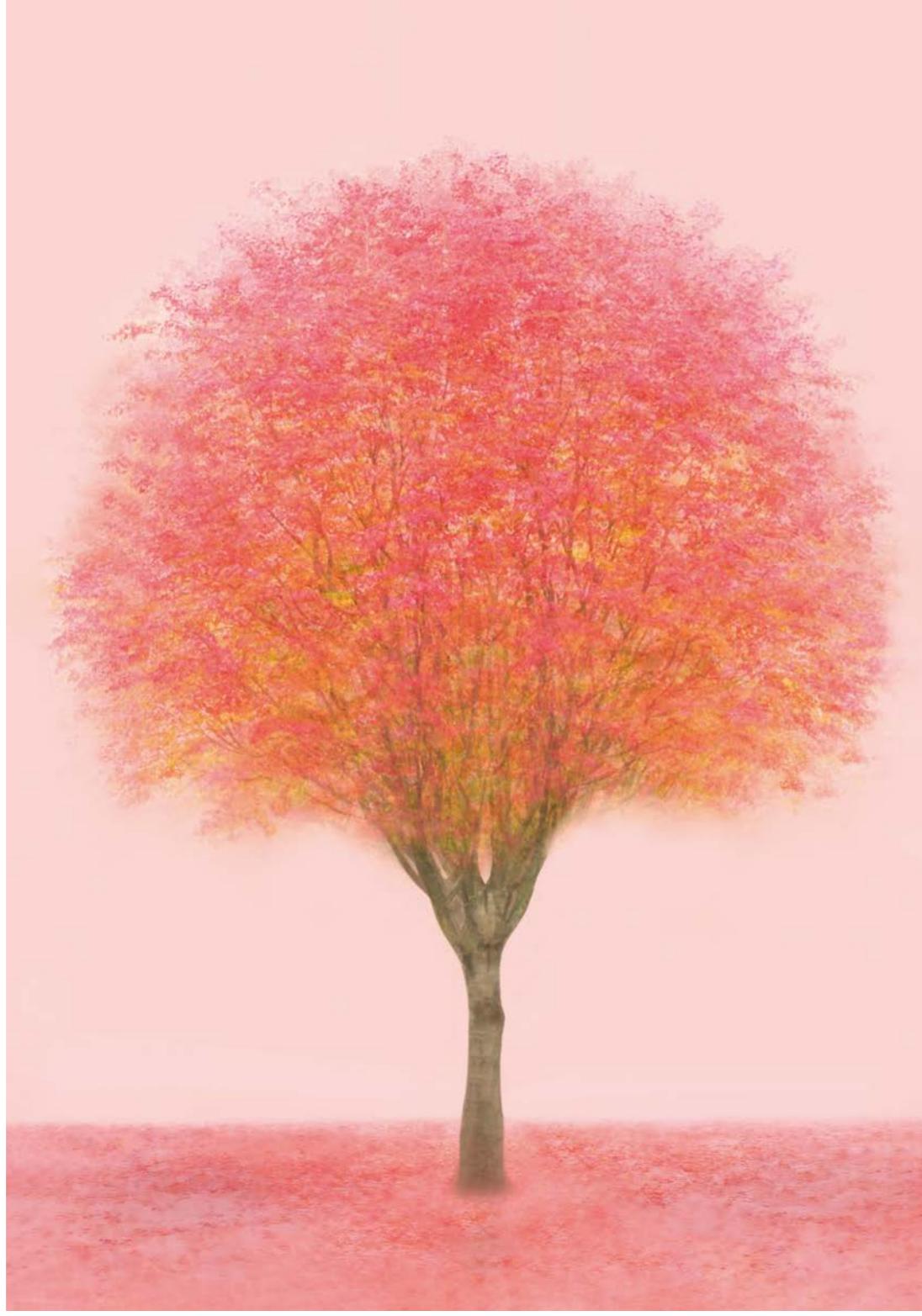
2023. 12. 06. PM.15:00

I · N · V · I · T · E

2023. 현재 우편엽서 125×175mm 기준 1통 발송비 400원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박정숙_상(狀)과 상(象)

편린들이 만나 하나된 완전체 상(狀)과 상(象) 박정숙(서울)

1차 전시일시 2024년 2월 14일(수) ~ 2월 26일(월)

1차 전시장소 마루아트센터 신관3F 3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5-4)

2차 전시일시 2024년 4월 1일(월) ~ 4월 30일(화)

2차 전시장소 단갤러리(충남 대전시 서구 148, 5F)

전시작가 박정숙

내 속에 들어와 상(象)이 된 그들을 사랑한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늘 그 자리에 서서 내게 울림을 주던
'상(狀)'과 '상(象)'들...

내 머릿속엔 그것이 동그랗고 원만함이었다.
둥글다는 것은 구르고 굴러도 모자람이 없이 푸근하다.

바람이 불면 바람과 부딪히며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눈이 오면 눈 속에 묻혀 우주의 변화에
묵묵히 적응하는 나의 나무

그 둥근 상(狀)은
더 아름답게, 더 원만하게, 더 사랑스럽게 담아내어 나무의
최고의 순간을 간직하고픈 상이다.

나의 나무가 다른은 내면 깊숙한 곳의 마음을 꺼내 보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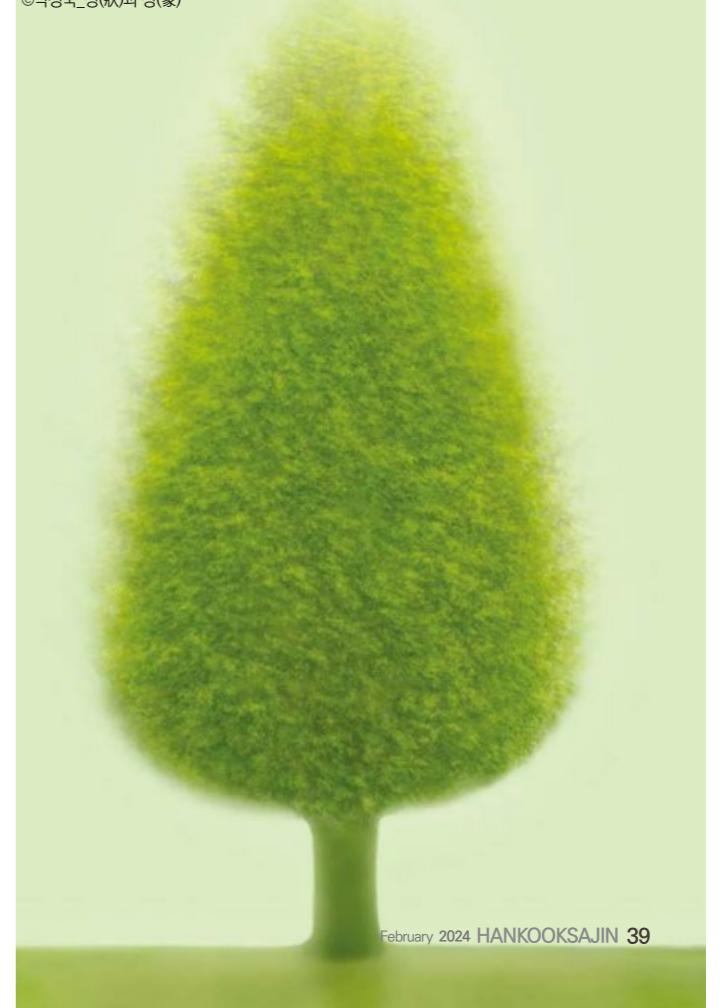
나무를 촬영하며 분주했던 나날들이 떠오른다.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던 시간들,
카메라 앞에서, 작업실 안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난 늘 깨어있어 행복했다.

자옥자옥 쌓아 올린 나의 삶이고 역사이고 사랑인 나의 분신들
감히, 내 분신들을 많이 사랑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박정숙_상(狀)과 상(象)

©박정숙_상(狀)과 상(象)





©박정숙_상(狀)과 상(象)



©박정숙_상(狀)과 상(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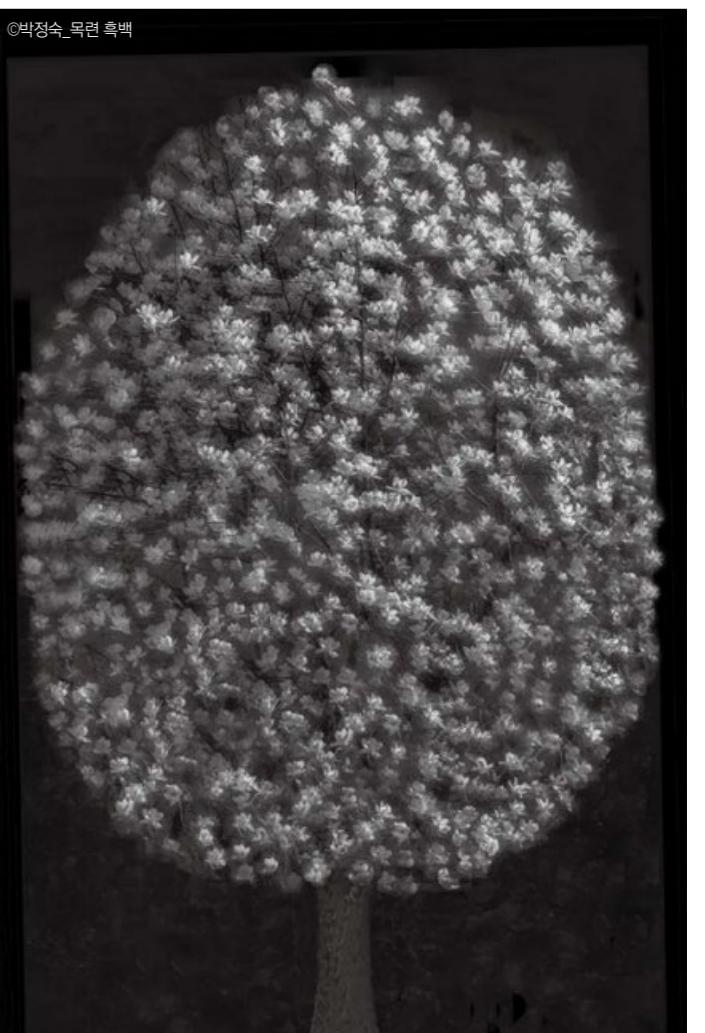
©박정숙_상(狀)과 상(象)



©박정숙_상(狀)과 상(象)



©박정숙_상(狀)과 상(象)



©박정숙_목련 흑백

잎사귀하나 작은 가지하나 가지와 잎사귀를 붙들고
있는 기둥하나 또 하나가 모여 완전한 하나가 된다.
하나 된 편린들이 외친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우주라고...



제주 바당 – 그 생명의 빛
저 검은 바다가 세운 희망의 닻에게
김 두 철(제주)

칠흑같이 검은 밤바다를 지키는 한 줄기 빛, 저 빛마저 없었다면 바다는 희망도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을 터, 새벽이 올 때까지 어두움과 싸운다.



©김두철_등대 #15



©김두철_등대 #30

전시일자 2024년 3월 16일(토)~ 3월 21일(목)
전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전시오픈 2024년 3월 16일(토) 오후3시
전시작가 도현(都炫) 김두철



©김두철_등대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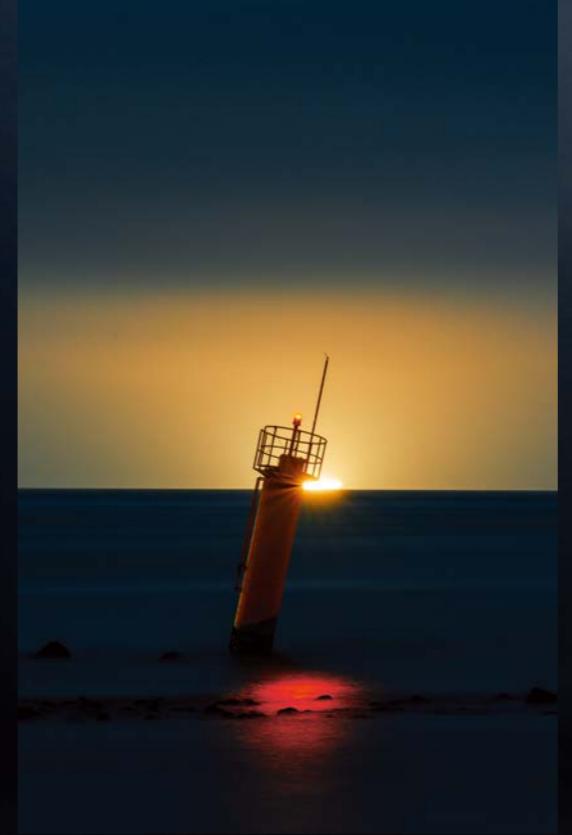


거친 파도가 세운 바다의 빛기둥이다
검은 바다가 쏘아 올린 한 줌 별이다

등대는 흐른다
파도의 시간이 묻어난 바위에도
전혀 달을 것 같지 않은 희망에도
갈 곳 잊어 출렁이는 마음들에게도
등대는 전한다
더 이상 해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다만 한 점이 거기 있음을



©김두철_등대 #39



©김두철_등대 #17



©김두철_등대 #16

나는 밤의 등대를 사랑한다
나는 밤의 등대에 이르기 위해 그 바다로 간다
나는 아무런 것도 걸치지 않은 순수의, 빛의 이력을 사랑한다
그 빛은 삶의 고단함 위에 엎어진 초연함이며,
표류하는 방향 위에 밤새 발산하는 생명의 불이다
깜깜 먼바다에서 돌아오는 자는 먼 곳에서부터 안다
빛이 빛으로 흘러 새벽에 닿는다는 것을

검은 바다가 등을 올린 채 말을 건다
바다가 없이, 등이 없이 서로가 어떻게 알아보겠는가
등대는 파도 같은 삶을 건너온 누군가의 눈빛에게
얼어붙은 어깨에게
보내는 위안이자 배려, 간절함이다

스스로 몸을 밝히고, 스스로 빛을 내주는
그 바다의 등이 어느 날 내게로 왔다
등대의 바다, 바다의 등대가 내게로 왔다
바다 위 흐르는 내 마음 앞에



전시광고

일그러진 군중은 나를 비추는 거울 흐르는 삶 – 전철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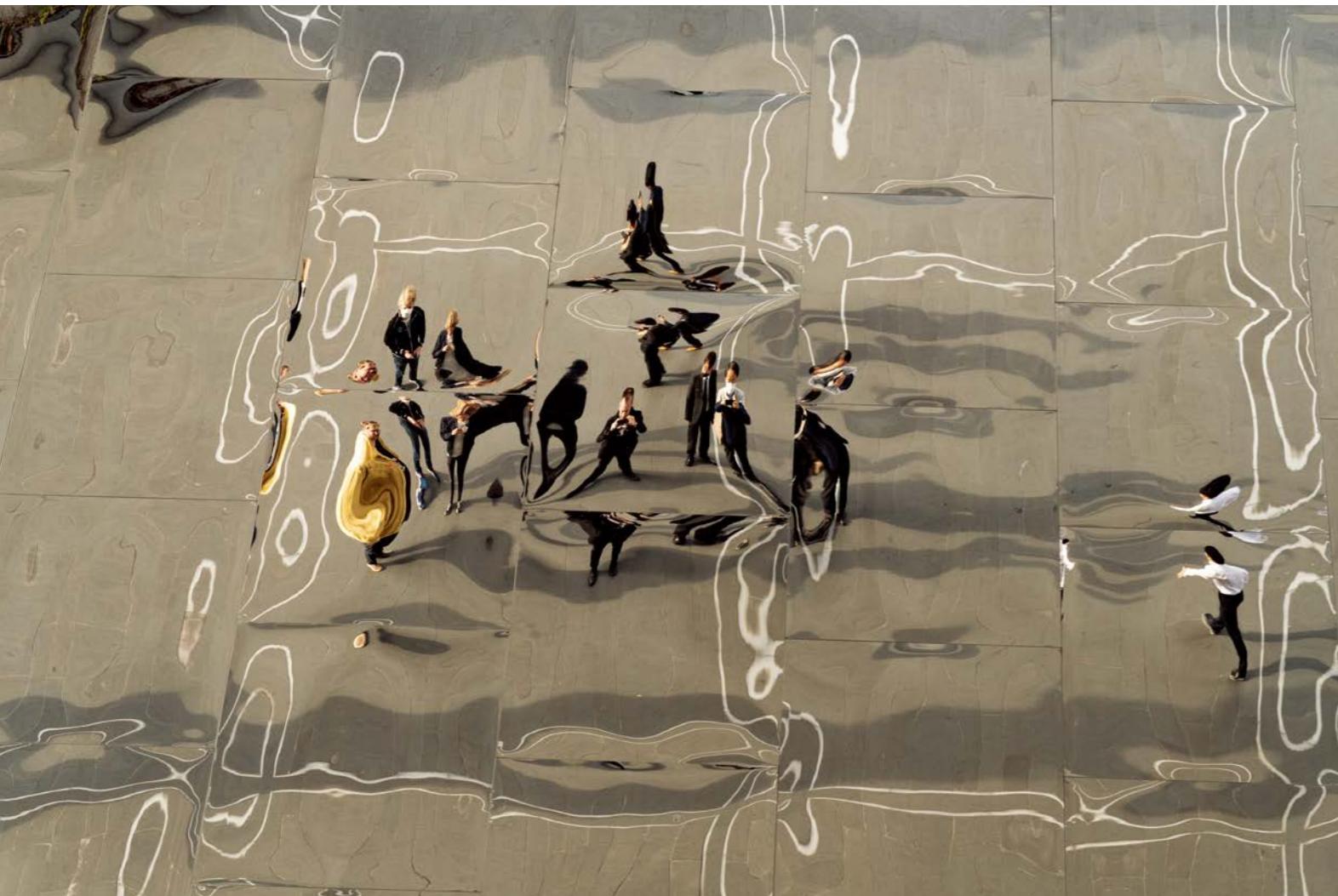
서경자(아산)

전시일시 2024년 3월 27일(수) ~ 4월 1일(월)

(관람 오전10시30분~오후6시)

전시장소 갤러리 라메르 1F 제2전시실

전시작가 서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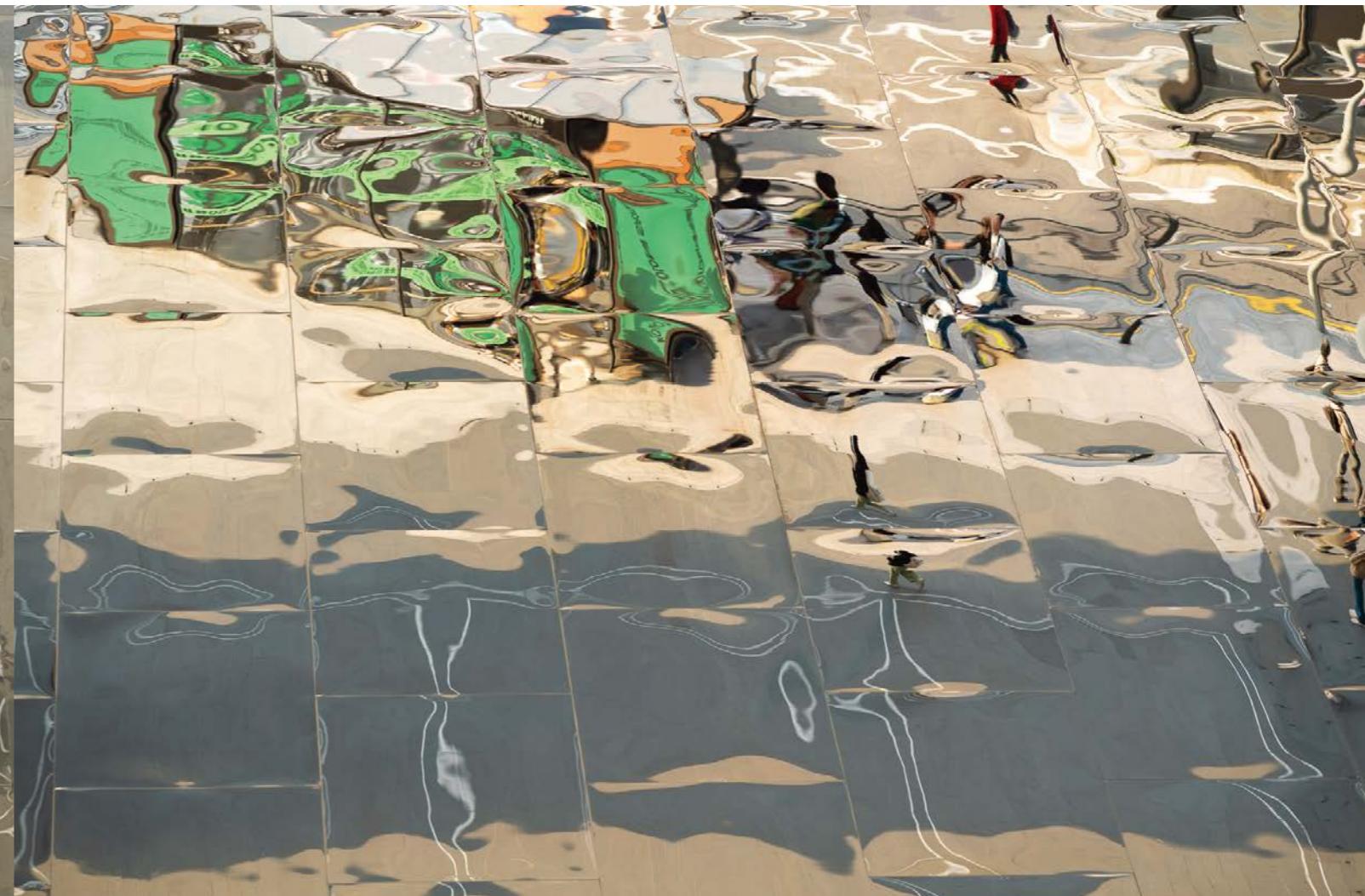


©서경자_색

도시의 삶은 항상 흘러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

누구도 올바른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삶을 이어 간다.



©서경자_파티

군중은 그 나름의 인격이 있다. 개인으로 만났을 때와는 다른 성격을, 또는 생경한 도덕관을 보인다. 우리도 그 군중 속에 묻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그리면 모두들 일그러져 있을 것이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렇게 길거리 사람들을 보는 일은 종종 나를 매혹시킨다



©서경자_그들



©서경자_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나의 그림자,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는 어떠한가? 그 것들은 입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은밀한 말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하나하나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무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뒤로 감추어져 있다. 거울 뒤에 숨어 있거나 길게 늘어지며 얘기를 과장하고 있다. 얼핏 보면 기괴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세상, 따뜻한 미소를 발견하자는게 작가로서의 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메시지 하나가 나의 일상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 세운다. 여태 걸어왔던



©서경자_꿈



©서경자_색

길과 다른 생소한 길.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야 할 길.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도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닐까?
나를 정직하게 보려면 시점을 바꿔야 한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봄야 한다. 거울은 정직하다. 높은 곳에 매달린 거울을 보며 살자.



©서경자_파티



전시광고

창살에도
한복 춤사위에도 살아있다
우리의 멋
- 線과 色

박 균 희(의왕)

©박균희_선과 색-1

©박균희_우리의 멋-4



©박균희_우리의 멋-5



전시일시 2024년 2월 18일(일) ~ 2월 24일(토)

(관람 오전 11시 ~ 오후 6시)

전시장소 갤러리 예지향(경기 의왕시 찬우물1길 15 1F)

작가와의 만남 2024년 2월 19일(월) 오후3시

전시작가 박균희





우리나라 전통의상인 한복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적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 아름다움의 기초는 색과 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색과 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오방색과 빛살무늬다.

아기들의 귀저기 천에 오방색으로 나염을 하여 기하학적인 빛살무늬의 선으로 표현하였다.

거기에 오방색의 한복을 입고 추는 전통의 춤사위의 만남은 색과 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극치의 미를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인 춤과 한복의 아름다운 색과 선을 보여주고자 한지의 전통문을 배치하였다.

전통적인 나염의 천과 한복을 입고 추는 전통 춤의 미를 강조하고자 흔들림 효과를 사용하였다.



©박준희_승무

직선과 사선 곡선이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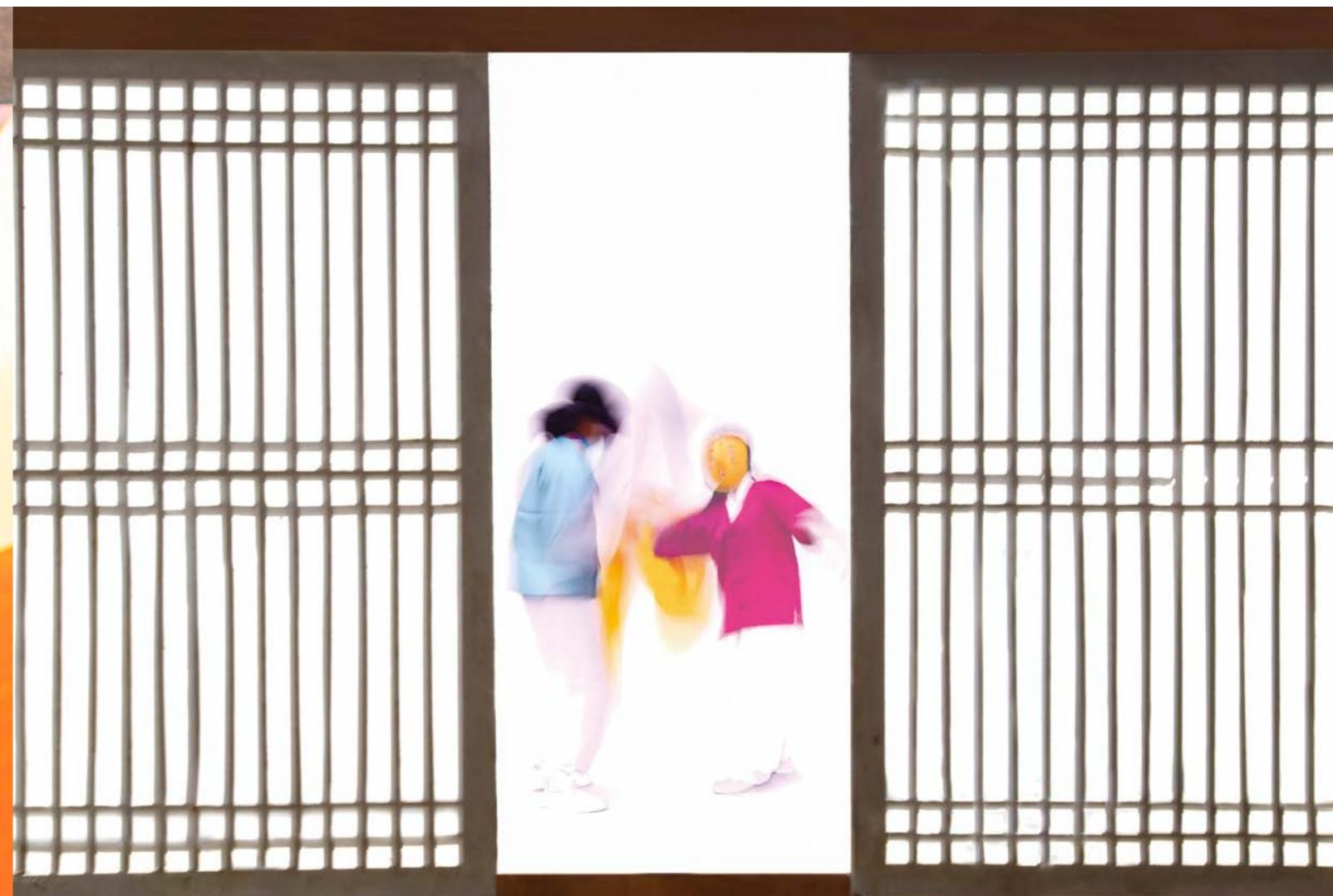
선은 면을 만들고 그 면에 오방색이 나염된다.

천연의 색 모든 자연을 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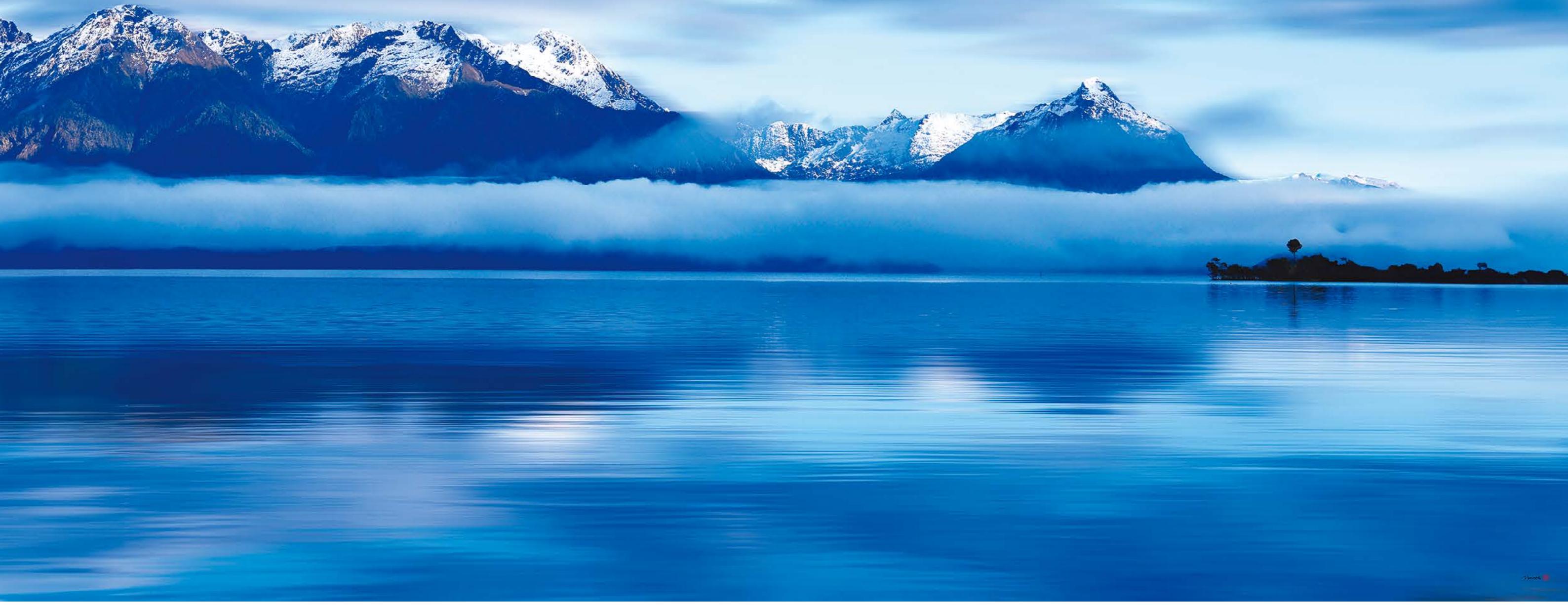
전통 한복을 입은 춤사위가 빛을 발한다.



©박준희_선과 색-3



©박준희_얼씨구



©김정식_영혼의 파노라마

침묵으로 허락했던 시간들

영혼의 파노라마 Panorama of the S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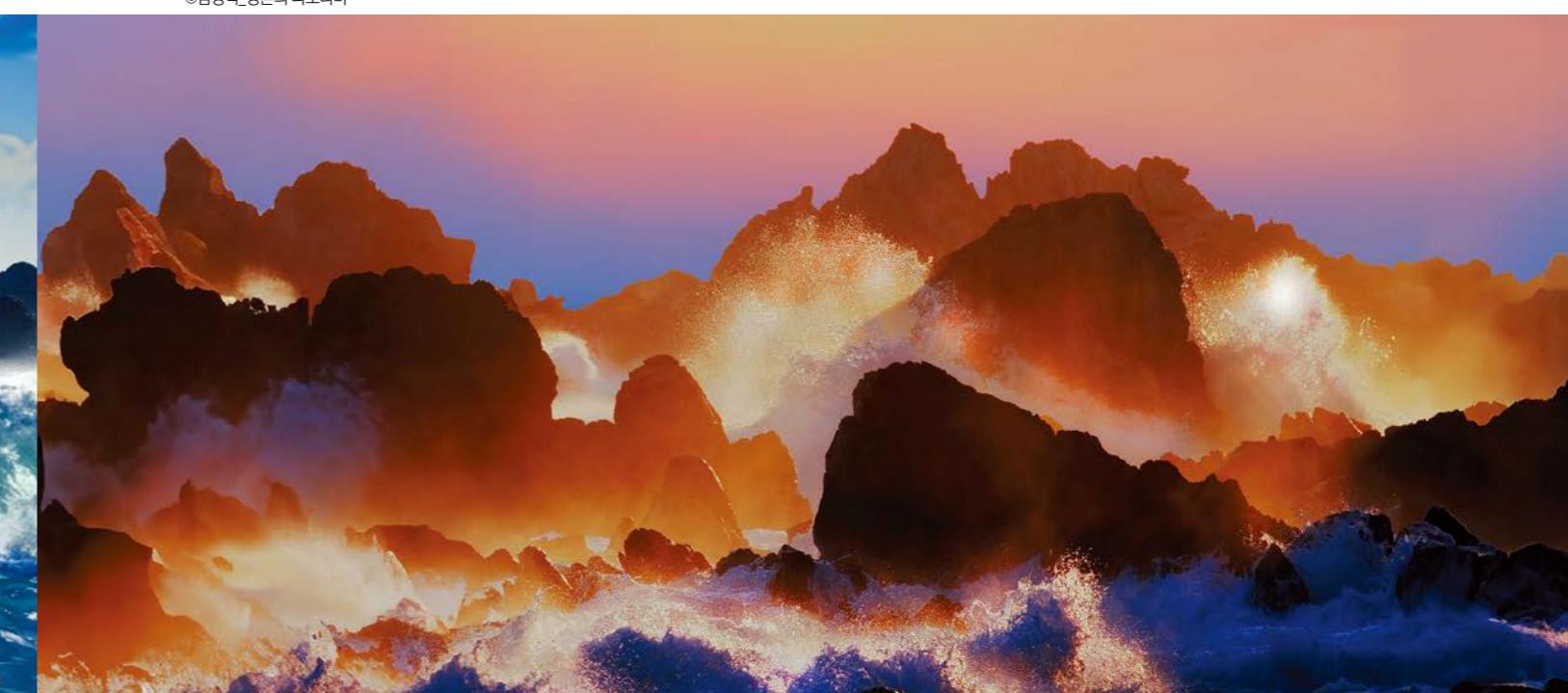
김 정 식(강동구)

굴곡진 삶의 여정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앞에서
바다만 고집하며 카메라에 담아 온 세월이 얼마나 아득하기만 합니다.
바다에 몸 던지고 사는 내게는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꿈을 키우게 한 바다는 나의 고향입니다.



©김정식_영혼의 파노라마

©김정식_영혼의 파노라마





©백만종_미륵사지 | 동탑은 9층으로 1991년 서탑을 본떠 복원하였다.

미륵사 서탑에서 무령왕릉까지 유네스코 문화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

백 만 종(서초구)

탑의 규모는 미륵사가 동양 최대의 사원이었음을 말한다. 해체 복원한 서탑은 목조탑이 돌탑으로 바뀌는 과도기를 설명하듯하고 온전히 발굴된 무령왕릉은 역사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백만종_미륵사지 | 서탑을 해체하고 복원 공사를 하는 모습(2017년 11월)



©백만종_미륵사지 | 두 탑이 완공 된 후, 절터 앞 연못에 반영되어 있다.

©백만종_미륵사지 | 서탑을 해체하며 나온 사리장엄구(보물 제1991호)



©백만종_미륵사지 | 사리장엄구 속 '금제 사리봉영기'로 639년 무왕의 왕비(좌평사 택덕적의 딸)가 발원하여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만종_미륵사지 | 사리장엄구에서 나온 사리봉영기

동아시아 최고의 석탑 미륵사지 석탑

유네스코 문화유산 여덟 곳 가운데 하나인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 때 창건한 사찰 미륵사가 있던 절터로 절은 폐사되었으나 반파된 서쪽의 서탑(1962년 국보 지정)과 당간지주(1963년 보물 지정)가 남아 있었다. 이 서탑은 조선초에 벼락으로 부서졌다고 하며 일제 강점기 때 봉고리를 막기 위하여 시멘트로 봉합해 놓은 것을 문화재청은 1999년 해체 보수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 드디어 서탑을 해체하였는데 1층 심주석(心柱石) 윗면 중앙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그 속 사리봉영기에서 왕비가 639년(무왕 40)에 탑을 건립하면서 사리를 봉안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삼국유사]의 미륵사 창건 기록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되었고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일 뿐더러 당시 동아시아에서 최대의 석탑이었음이 밝혀졌다.

사라진 동탑은 서탑을 본떠 9층까지 조금 일찍 복원하였고, 서탑은 해체되기 전까지의 모습인 6층까지 복원하여 2019년 해체 복원을 결정한지 20년, 해체한지 10년 만에 준공하고 일반에 공개하였다. 백제인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알 수 있는 한민족의 위대한 문화재인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 복원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대공사였으며, 이를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친 여러 차례 촬영 작업이 지나고 보니 보람있는 일이었다.



©백만종_송산리 고분군〈무령왕릉과 왕릉원〉
무령왕릉은 1971년 6호분 무덤 쪽 배수시설 공사 중 발견되어 1,400여 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백만종_송산리 고분군〈무령왕릉과 왕릉원〉
왕비와 왕의 부장품을 나누어 전시하였는데 왕비 금제관장식(국보 제155호)에는 구슬이 없다.

1,500년 전의 타임캡슐 무령왕릉

공주 송산리 고분군(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은 백제 최고의 역사유물이 아닐 수 없는데 현대의 우리들은 마치 1,500년 전에 묻어 놓은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행운을 얻었다. 옛 백제의 고분은 일제강점기 악랄한 일인들이 도굴과 약탈 그리고 유물들을 불법적으로 반출해 갔는데 무령왕릉처럼 도굴이 되지 않은 것은 천우신조로 천만다행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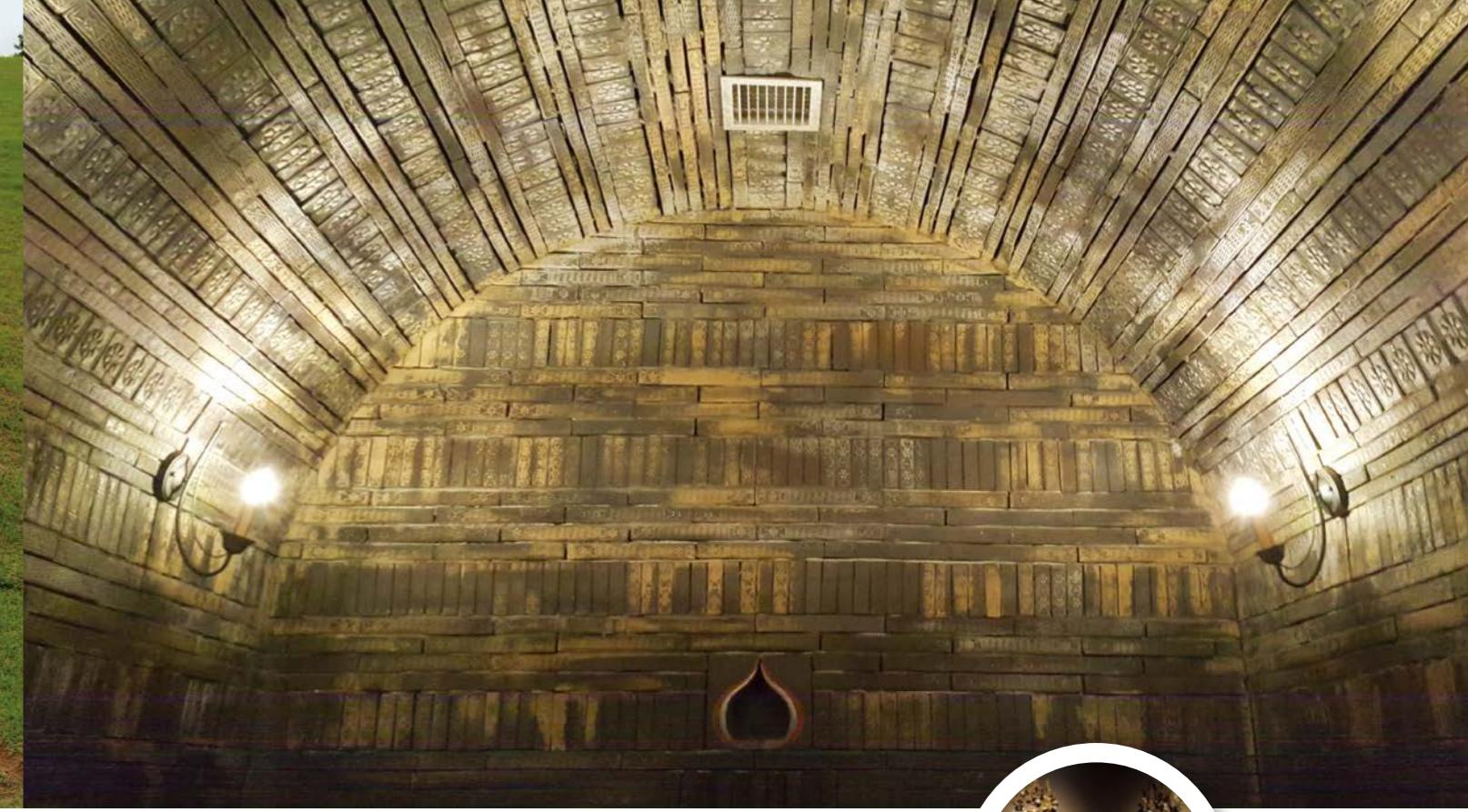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4,600여점의 다양한 유물 가운데 국보가 무려 17점이나 지정되었는데 그중 백미는 단연 자석으로 능의 주인이 무령왕이고 능이 523년에 조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묘지석에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께서 나이 62세 되는 계묘년(523)에 돌아가셨다.”라고 새겨져 있다. 그리고 유물을 보면 백제인의 고도의 금속세공 기술을 염볼 수 있으며 [삼국사기]에 백제의 “왕이... 금꽃으로 장식한 비단 모자를 착용했다”고 써있는데 바로 그 금꽃이 왕 금제관장식(국보 제154호)이다. 무령왕릉은 벽돌로 정교하게 쌓아올린 능침 내부와 부장품과 벽화 등 1,500년 전의 장례문화와 당시의 높은 예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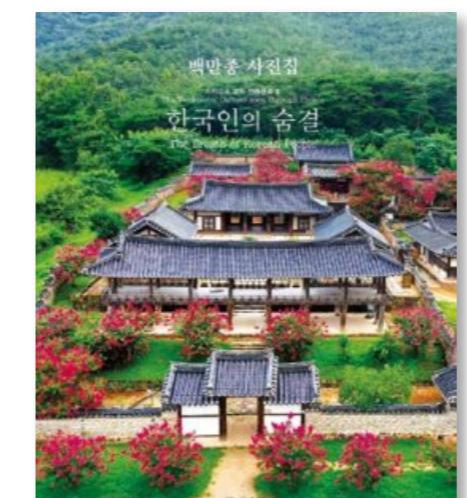
2015년 등재된 유네스코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위 두 곳 이외에 공주의 공산성, 부여의 관북리유적 및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부여 왕릉원), 정림사지, 부여 나성, 익산의 왕궁리 유적 등 여덟 곳이다.

©백만종_미륵사지
무왕(600~641 재위) 때 지은 미륵사의 절터는 남아 있는 백제시대의 절터 가운데 가장 크다.

©백만종_미륵사지
서탑은 2009년부터 해체하여 복원 작업을 거쳐 20년만인 2019년에 공정이 완료되었다.



©백만종_〈무령왕릉과 왕릉원〉 무령왕릉의 현실로 연화문 벽돌을 염으로 누고 그 위에는 세워서 차곡차곡 쌓았다.



백만종 작품집



©백만종_〈무령왕릉과 왕릉원〉
무령왕릉에서 부장되어 있던 4,60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무려 17점이나 국보로 지정되었다.

필자는 전통문화사진가로 세종조 회례연을 비롯한 20개 종목의 무형문화재를 담아 [한국인의 숨결 Ⅰ]을 발간하였고, 이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서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과 율곡 이이 등 위대한 선현 다섯 분의 발자취를 담은 [한국인의 숨결 Ⅱ]를 발간하였다.



벗는 게 아니고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본성 '누드'

이 한 성(청주)



©이한성_누드는 벗는 게 아니고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한성_누드는 벗는 게 아니고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인체의 아름다움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 표현할 수 없는 美의 결정체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꾸미지 않은 원초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한다.
순수한 여체가 담고 있는 선과 결의 무궁한 아름다움에서 지고한 내적 울림을 담는 일이 누드의 본질이다.



©이한성_누드는 벗는 게 아니고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한성_누드는 벗는 게 아니고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한성_누드는 벗는 게 아니고 입지 않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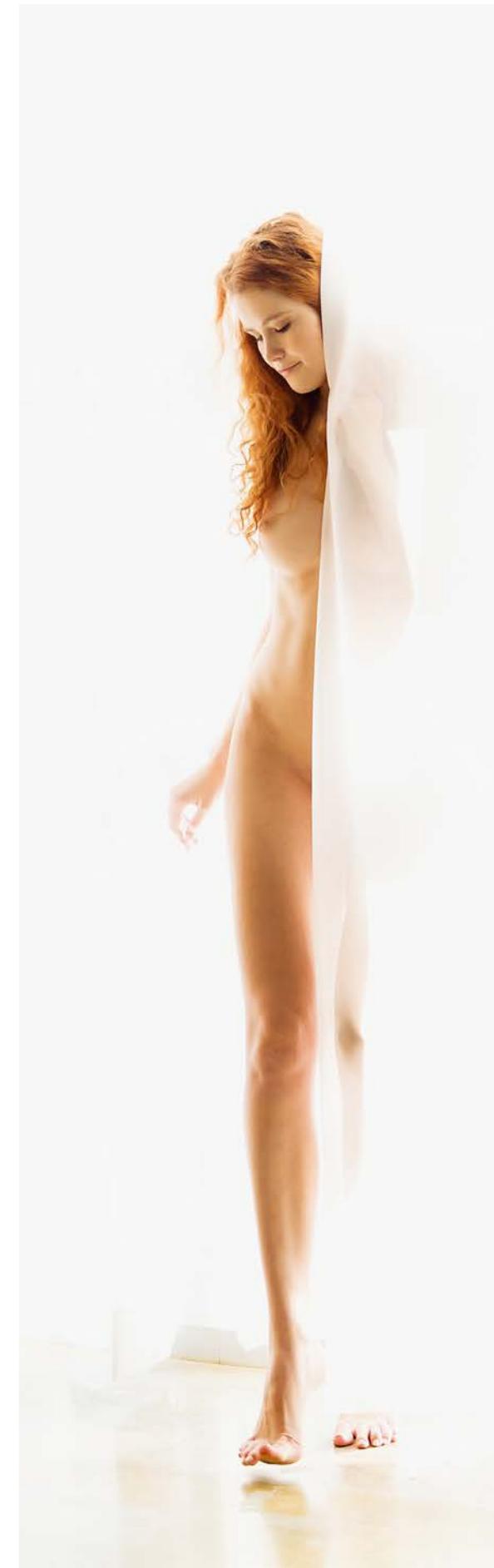


©이한성_누드는 벗는 게 아니고 입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2주간 누드사진 개인전을 실시하였다. "누드란 벗는 게 아니고 입지 않은 것이다" 란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

십수 년간 여체의 신비로운 선과 결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녔다.
모든 장르의 사진작품이 어렵지만 특히 누드 사진 만큼 어려운 분야도 없다.
한점 한점 어떻게 해야 예술작품으로 비칠 수 있을까?
셔터를 누를 때마다 고심에 고심을 하곤 하였다.
자칫하면 누드사진은 천박한 사진으로 전락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드의 예술성을 부각하기 위해 서정적인 감성과 살아 움직이는 듯한 부드러운 살결과 숨막이는 굽곡된 선을 정성스럽게 담아내고자 무단이 노력했다.
여신의 미적표현은 물론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심오한 미를 찾아
누드의 또 다른 예술적 가치를 증명하고 삶 속에 묻어나는
순수한 누드의 본질을 표현하였다.





고귀한 신의 창조물 나래쉬고 이 땅으로
뚜루루의 꿈 II

김병철(원주)



©김병철_희망의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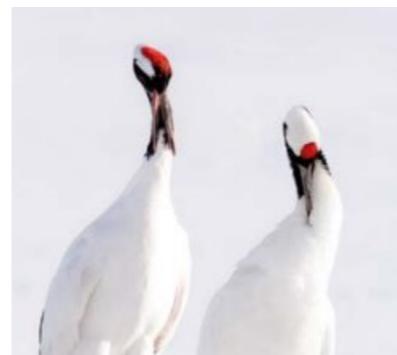
“모든 신은 자신의 고유한 형상에 따라 창조한다. 화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진가만이 자연의 복제를 만들어 낸다.”



©김병철_표효



©김병철_잠자리



©김병철_두 루루의 꿈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같은 친구들과 예술 운동을 이끈 기욤 아폴리네르 (Guiloume Apolinaire)의 말이다. 자연 어우러진 두루미, 우아함과 단아한 품세,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노력했지만 나 자신이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 신비롭고 고귀한 신의 창조물인 두루미, 옛부터 장수의 표상인 십장생(十長生)의 하나인 두루미의 생태를 표현하고자 했다. 사진은 빛의 그림이라고 했다. 날씨에 따른, 해의 빛에 따라서 그들의 내면세계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내면의 세계까지 접근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 일 것이다. 더 노력하고 안내하면서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사진을 얻도록 더 노력 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병철_두 루루의 꿈



©이광진_기다림에 대하여

밤새 대면하는 고독, 마침내 빛이 온다

기다림에 대하여

이 광 진(대구)

죽명처럼 또 다시 고독과 싸운다. 지독한 외로움을 즐기지 않으면

새 아침 찬란한 빛을 포착할 수 없다.

긴 호흡으로 장노출의 셔터소리를 들으면 가슴 깊이 벅찬 감동이 밀려온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나는 바닷가에 고독의 트라이포드를 세운다.



©이광진_기다림에 대하여



사진을 한다는 것, 특히 필름으로 장노출
사진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작업이다.

텅 빈 바다에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문득 찾아오는 무엇인가는 적막함이다.

한 참을 돌아 돌아 찾아온, 이 자리가
이렇게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불현듯 스치는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쩌면 외로움은 작가들이 맞이하는 숙명인지도 모르겠다.
혼자만이 갖는 외로움이 또 새로운 갈구를 불러오고,
갈구하는 마음이 또 다른 꿈과 희망을 불러오고

그래서 또 다른 기다림으로 외롭고 힘든 출사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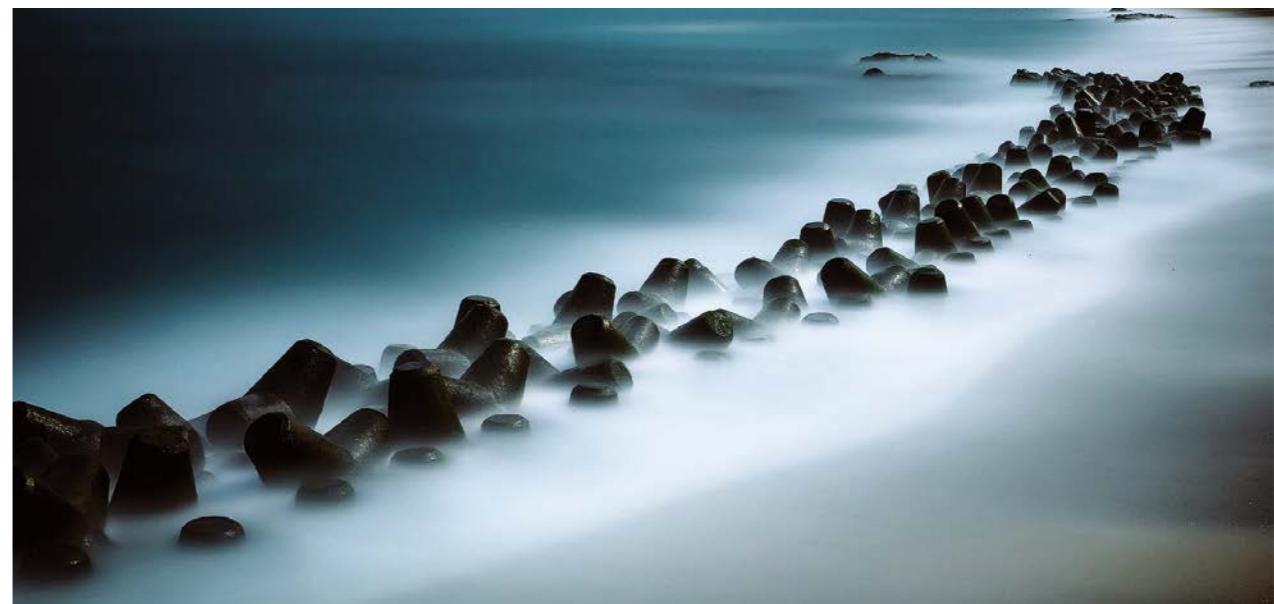
©이광진_기다림에 대하여



©이광진_기다림에 대하여



©이광진_기다림에 대하여



©이광진_기다림에 대하여

위험한 곳 찾아 사람사는 냄새 '찰칵' 양승우 사진전-人間, 나와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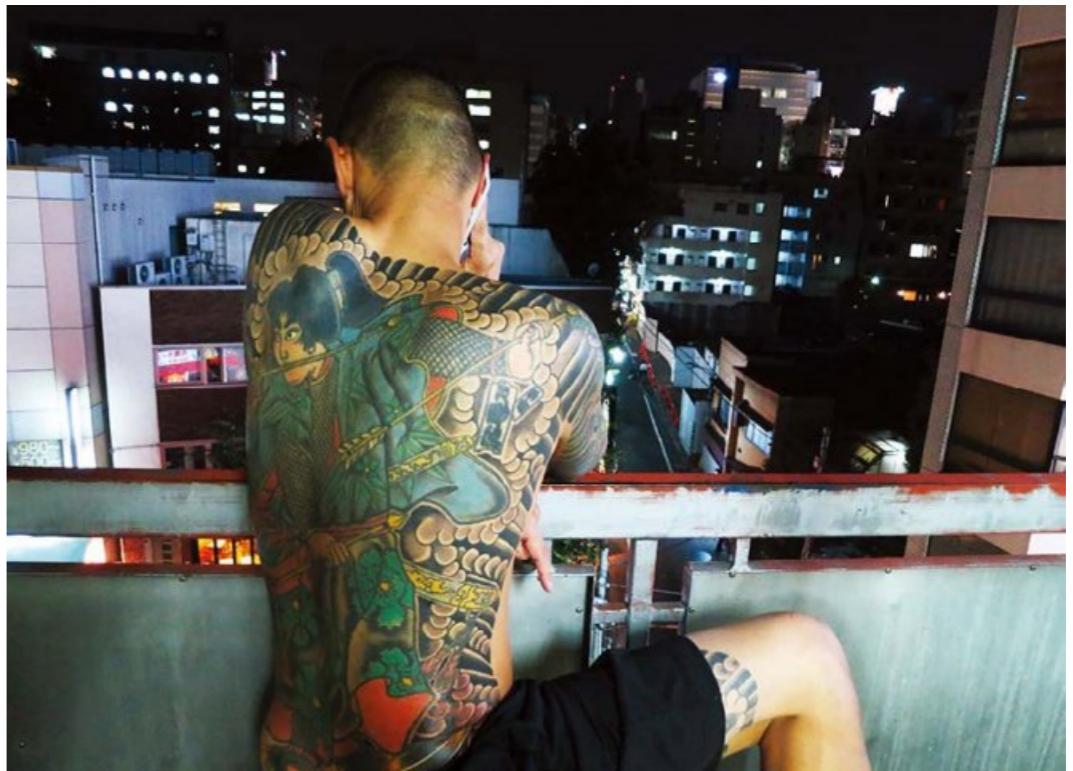
글·사진제공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양승우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유명한 한옥마을에서 남천교나 싸전다리를 지나 전주천을 건너가면, 과거 선생촌으로도 불리웠고 이제는 '예술마을'이라 불리는 서학동이 나온다. 낙후된 지역이었던 서학동에 2010년부터 예술인들이 하나둘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공존하며 아기자기한 예술촌으로 변신했다. 전북 진안에서 사진공동체박물관인 '계남정미소'를 운영하던 사진가 김지연이 서학동의 조

용한 골목 끝자락의 한옥을 개조해 서학동사진관을 만들었고 2022년에 이일순 작가가 대표직을 위임받아 장르를 확장시켜 '서학동 사진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에서 사진가 양승우의 오래간만의 사진전 〈人間, 나와바리〉 전시가 2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나는 양승우 작가에 대하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한 눈빛과 미소, 그리고 작품과 이력만을 알 뿐이지만 전형적인 흑백사진과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 체험하는



©양승우



©양승우



©양승우



©양승우

'찐'스트레이트한 작업방식으로 날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회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간다운 삶과는 다른, 거친 환경 속에서 공존이 아니라 홀로 생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본 작가의 스토리가 아담하면서도 소담스러운 갤러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

인간은 스스로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허세 형과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자행하는 암묵 형이 있다. 허세 형은 자학을 내포하고 있어 서글픈 폭력자들이다. 그런데 암묵 형 폭력자들의 경우 위선적이며 엘리트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고 그 힘은 바이러스처럼 세상 어디에고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다. 한 야쿠자(폭력배)가 신주쿠에서 그의 '나와바리'(세력권)을 내려다보는 뒷모습이 인상적이다. 그의 등판에는 울긋불긋한 이미지의 문신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의 발아래 '나와바리'를 내

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설마 하루하루를 벌어먹으며 살려고 버둥거리는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것들을 얼마나 길고 고통스럽게 착취해 먹을까를 궁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양승우는 한국에서 이것 저것 바둥대며 살다가 재미가 없어서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체재 편의상 사진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진 소재를 찾다가 거리에서 우연히 야쿠자 다섯 명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달아났다가 그의 낭인 기질에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면서 서서히 그들과 친밀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그는 노숙자, 술집 직원, 트랜스젠더 등 사회 저변층을 상대로 사진을 찍었다. 그의 사진은 동물적 감각이 살아 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도모켄사진상'을 수상했다. 그의 사진을 언뜻 보면 혐오감이 들고 그다음엔 어떻게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사진가들은 전쟁터에도 가고 원전이 폭발해서 방사능 수치가 살인적인 곳에도 간다. 그것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다. 진실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본성을 볼 수 있다. – 김지연 서학동사진미술관장

양승우(1966)는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다 고등학교를 두세 군데 옮겨다닌 끝에 졸업했다. 온 체중을 실어 내리꽂는 원투 편치로 세상을 석권해 보려는 야심도 키워 보았으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깨달은 바 있어 무작정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다(1996년 도일). 일본사진예술전문학교(2000)를 졸업하고 동경공예대학교(2004)와 대학원(2006)에서 사진을 공부했다. '신주쿠는 위험한 곳이니 가지 말라'는 교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메라를 메고 신주쿠에 나가 야쿠자를 찍고 흄리스들과 살았다. 그에게 신주쿠는 해방구였다. 현재는 두어 군데 갤

러리 전속 작가로 카메라에 온 체중을 실어 일본에서 활동 중이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험한 알바도 마다 않는 가장이다. 2017년 『신주쿠 미야』로 일본 최고의 사진상인 도모肯 사진상(마이니 치신문사 주최)을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했다. 국내에 출판된 사진집으로는 『청춘길일』(2016)과 『양승우 마오 부부의 행복한 사진일기-꽃은 봄에만 피지 않는다』(2017)가 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다큐멘터리 사진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사진'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는 '나쁜 친구들'과 '위험한 곳'에서 '사람 사는 냄새'를 맡아온 사진가다.

전주 '서학동 사진미술관'은 2013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학동 골목 끝에 있는 1972년에 지어진 한옥을 개조한 갤러리다. 아담하고 따듯한 전시실과 소박한 마당, 뒤틀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공간이다. 99% 기획 초대전으로만 운영되던 '서학동사진관'은 대



Review & Preview



©양승우

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사진작가, 사진그룹의 작품들을 기획 초대하여 왔고 이제는 사진 미술계에서 이름있는 사진 전문갤러리로 자리매김하였다. '서학동사진미술관'으로 재탄생하면서 모든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 소통의 창구로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장르가 융합되고 다양한 작품과 기획들을 품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또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고 있다. 이처럼 '서학동사진미술관'은 시대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현시대 조명해야 할 작품과 지역의 역량있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관람자들에게 의미있는 문화 향유의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기 위해 폭넓은 미술 분야, 기획성 프로젝트 등 시각 분야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를 대표하는 예술 특구인 '서학동예술마을'에 자리 잡고 있기에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전시공간을 찾는 지역 애호가, 작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소통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공간으로써 역량을 발휘하여 전북의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가진다. – 서학동 사진미술관

나에게 양승우 작가와 서학동 사진미술관은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오래전에 사진관련 공부와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관심이 생겨 자료를 찾아가며 조사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고 응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 다 나를 모르지만 나는 이력과 역사를 찾아보며 혼자 좋아하게 된 이 둘의 정진과 성공을 기원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며 같이 지내면서 작업해 왔고 요즘 도 노숙인들을 찾아 같이 지내며 그들에게 의미를 찾아 주려하고 있는 조문호 작가도 그렇고, 양승우 작가처럼 봄으로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하며, 금전과 명예욕이 넘치는 문화예술계 안에서, 외견은 작아 보이지만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며 대중과 호흡해 주는 예술공간을 유지하는 이들도 그러하다. 모두 내가 감히 하지 못하는 것들인자라, 그들의 행보를 쫓으며 존경과 응원을 보낼 뿐이다. 부디 이런 이들이 박수받고 존중받는 문화예술계가 되어 가기를 바라며, 우리도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嬖한 사진미
기념사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거래중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납품



젤라틴 바르고 티슈 입히고... 일곱 단계 공정 카본프린트 만들기

글, 사진제공_김정현(총의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 본 협회 교육전문위원회 위원, 사진교육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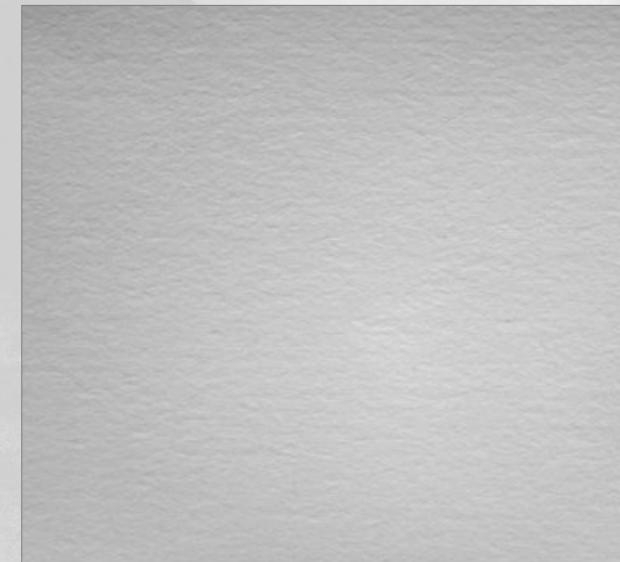
카본프린트 프로세스는 크게 아래의 7단계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이징(Sizing paper)

카본프린트는 대부분의 작업 과정이 40°C 좌우의 물에서 진행되므로 내수성과 내구성이 좋은 종이를 선택해야 한다. 우선 준비된 종이는



사이징 전



사이징 후

2) 티슈 제작 (Making t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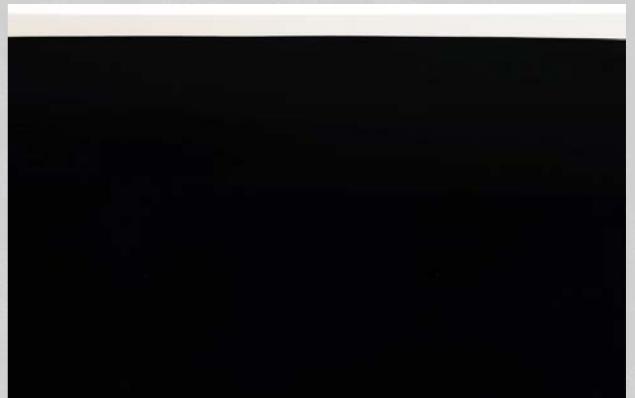
티슈(tissue)의 제작은 카본프린트 작업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티슈의 제작 상태에 따라 최종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티슈 제작은 매우 신중하게 한다.

- (1) 카본프린트의 주재료는 젤라틴, 설탕, 색소, 중크롬산칼륨이다. 젤라틴은 색소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강도와 투명도 그리고 일부 화학 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2) 물 1ℓ에 젤라틴 50g과 설탕 25g를 넣고 1시간 30분 정도 유지한다. 물의 온도는 43°C가 적당하다. 사진3, (젤라틴)



젤라틴

- (3) 1시간 경과 후 준비된 색소 50g을 젤라틴 용액에 희석한다.
- (4) 색소를 희석한 젤라틴은 40°C의 항온기에 1시간 동안 유지한다.
- (5) 준비된 젤라틴 용액은 천으로 된 거름망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 한다.
- (6) 젤라틴 용액을 도포하기 위한 종이를 준비한다. 종이는 미리 물에 적셔서 평판한 곳에 편 다음 10분 정도 건조한 후 사용한다.
- (7) 젤라틴 용액을 건조된 종이 위에 1mm 두께로 도포한다.
- (8) 도포 완료 후 24°C 온도에서 충분히 건조한다. 빠른 건조를 위해 제습기나 온풍기를 이용해도 된다.



완성된 티슈



(9) 건조된 티슈를 10% 농도의 중크롬산칼륨 용액에 약 2분간 담근 후 건조하면 감광성을 가진 티슈가 완성된다.



티슈를 중크롬산칼륨 용액에 담그기

3) 네거티브필름 제작 (Printing the negatives film)

카본프린트는 티슈에 네거티브 필름을 밀착하여 이미지를 노광해야 한다. 따라서 완성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한 네거티브 필름이 필요하다. 네거티브 필름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잉크젯 프린트, 일반 복사기, 옵션프린트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기호에 맞게 제작하면 된다. 먼저 이미지를 사진 보정 프로그램으로 수정한 다음 흑백 이미지로 변환한다. 이미지의 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설정한 다음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크기와 같게 출력하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네거티브필름의 선명도나 명암의 농도에 따라 결과물에 큰 영향을 주므로, 먼저 테스트용 네거티브 필름을 제작하여 테스트한 후 최종적인 네거티브 필름을 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거티브필름 제작 방법도 OHP 필름에 출력하는 방법보다는 옵션프린트를 이용하여 제작한 네거티브 필름이 명암의 표현력에 있어 훨씬 유리하며, 보관도 용이하다.

4) 노광 (Exposing the tissue)

티슈는 자외선(UV)에 반응하여 젤라틴층이 경화된다. 경화 속도는 경화제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본인의 작업에 맞게 경화제의 농도를 조절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경화제의 농도가 높으면 경화 속도가 빨라지고, 농도가 낮으면 경화 속도가 늦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20% 농도의 경화제를 사용하였다. 노광에 사용되는 광원은 UV-A이며, 주로 감광제의 경화에 사용된다. 노출 시간은 노광기의 광원과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출 테스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노광기를 이용한 노광

5) 종이에 티슈 붙이기 (Mating the tissue paper)

노광이 완료된 티슈를 최종적으로 완성할 종이에 이미지를 옮기는 과정이다. 노광이 완료된 티슈를 20°C의 물에 약 30초간 담근 다음 스퀴즈를 이용하여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다. 티슈가 물에 적셔지면 티슈의 표면에 있는 젤라틴층이 반응하여 경화가 진행된다.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 2분간 건조한 뒤 사이징이 완료된 종이에 밀착시킨다. 밀착 시간은 약 20분간 지속시킨다.

6) 현상(Developing the print)

카본프린트에서 현상은 티슈에 밀착된 종이를 물에 넣어 분리하여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 현상하고자 하는 티슈보다 큰 트레이에 40°C 물을 가득 채운 다음 티슈를 물에 담근다.
- (2) 물에 담근 후 3분 정도 지나면 티슈와 종이의 가장자리 부분을 확인한다. 가장자리의 검은색색소가 천천히 녹아 흘러내리면 티슈를 제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 (3) 티슈와 종이를 분리할 때는 한쪽에서 시작하여 한 방향으로 천천히 제거한다. 티슈를 분리할 때 과도한 힘을 가하면 종이가 손상을 받거나 티슈가 함께 분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4) 티슈를 분리한 후에도 종이 위에는 아직 완전한 이미지가 보이지 않고 검은색의 젤라틴층이 쌓여 있게 된다. 이때 40°C의 물을 종이 위에 천천히 흘려서 남아있는 젤라틴층을 제거하면 서서히 이미지가 드러나게 된다. 이미지가 완전히 드러나면 깨끗한 물로 수세 한 후 건조하면 된다.

7) 수세(Clearing the print and final bath)

이미지가 완성되면 최종 수세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은 작업 과정에서 종이에 침투되어 있는 경화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생략하면 종이에 남아있는 경화제로 인해 이미지가 변색 될 수 있다. 우선 과망간산칼륨 3g을 5ℓ 물에 희석하여 만든 용액에 약 2분간 담근다. 용액에 담근 종이는 노란색으로 변한다. 이것은 종이에 남아있는 경화제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변색 된 것이다. 다음으로 메타중아황산나트륨 15g을 5ℓ 물에 희석한 용액에 다시 5분간 충분히 담가준다. 이때 노란색으로 변한 이미지는 다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투명하게 종이의 원래 색으로 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에 약 5분간 수세하여 건조하면 작업이 마무리된다.

카본프린트 프로세스는 다른 고전프린트 프로세스에 비해 다소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며, 기술적 난이도 또한 높다. 이러한 이유로 대량 생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밀려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카본프린트가 가진 색의 묘사력과 보존성 그리고 다른 매체로의 확장성은 다른 프로세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손쉬운 길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작가에게 꼭 한번은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린다.



복돈 줄게 재양되는 돈 줍지 말라 세뱃돈의 유래

글 사진제공_최승언



한국의 새해 풍습 세배

곧 설 연휴가 시작된다. 지금은 4일 정도를 쉬지만 농업이 주산업이던 시절 설날에서부터 보름까지 15일간이 축제의 기간이었다. 이때 다양한 축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차례 제사로 시작해서 세배하기, 연날리기, 복조리 나누기, 쥐불놀이, 자신밟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 다양한 연초 행사를 치르기 위해 15일 정도는 필요했을 것이다.

설날의 세배는 제사 의식과 연결된다.

제사가 돌아가신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라면 세배는 살아있는 조상을 높이는 행위였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복을 내려주고 살아계신 조부모에 세배를 드리면 세뱃돈이라는 현찰, 복돈을 내려준다.

세뱃돈을 복돈이라고 했던 것은 세뱃돈의 유래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양문화권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물건이 하사품이다. 임금과 신하 간에 절을 하고 하사품을 받았다는 것은 받는 쪽이 준 쪽에게 충과 효를 맹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충과 효를 다하는 대신에 하사품으로 복을 받는 일종의 거래였다. 세배와 세뱃돈은 바로 이런 거래의 축소판인 셈이다.

윗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존경과 복종과 같은 소속임을 표현하는 암묵적 합의가 된다. 이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임금과 신하, 천자와 제후 간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사품을 내리는 윗사람은 권위가 커지고 아랫사람은 그 소속으로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관례가 국가 간의 무역 거래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볼 때 복종의 맹세와 하사품의 거래는 같은 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부모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이유는 재양을 부르는 돈을 길에서 줍지말라는 의미였다. 새해가 되면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짚으로 만든 인형 안에 돈을 넣고 액운을 담아 길에 버렸다. 그 액운을 줍는 이에게 액운이 돌아간다는 주술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새뱃돈을 받고 액운 품은 돈은 멀리하라는 액막이 새해 첫 선물이 복돈이다. 즉 내게 있는 재양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액막이 주술이 횡행하는 시기에 내 자손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새뱃돈에 담겨 있다.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은 인류의 오랜 제사 풍습에서 나타난다.

동남아 태국 북부지역 매싸이 매홍손과 라오스를 여행할 때도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라후족이 사는 보클라이 마을을 들렸을 때였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있었는데 돼지 잡는 이유가 아이가 아파서였다. 죽음을 돼지에게 주고 아픈 아이를 구한다는 주술적 의미라는 것이 가이드의 설명이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기 싫으니까 대신 다른 생명체를 희생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아픈 아이가 회복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 마을을 벗어났지만 인간에게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지배하고 있고 지구촌은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고조선때부터 하늘에 제사 지내던 창성단



새해풍속 달집 태우기



양에게 안수하고 제물로 바치는 유대인의 제사



강화도 참성단의 채화. 제천의식과 연결된다.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생명연장이나 행복을 희구하는 제사는 인간만의 의식이다. 인간 외에 그 어떤 동물도 제사를 지내는 개체가 없다는 점은 제사가 인간을 특징짓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의식을 주관하는 제관이나 제사장은 특별한 취급을 받고 존중받아 온 것도 제사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하겠다.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된다. 돼지를 잡든 양이나 소를 잡든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불문율이다. 제사에 쓰는 제물은 소중하고 귀한 것을 올린다.

과일 하나도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신이 복을 내려준다고 믿기에 생명을 바치는 의식을 주관하는 제관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데

진심일 수 밖에 없다.

제의 의식은 인간이 또 다른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신과 교통하고 추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빼박증거'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육적 세계만 보는 동물들의 차원을 넘어 영적 세계를 추구한다는 의미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음성에 따라 아들을 희생하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아들을 살리는 결단을 보여준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장면도 적혀 있으니 성경에서 제사는 거의 6천 년 가까이 올라가는 셈이다.

동양에서는 하 은 주 등 고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다.

황제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제사를 받다가 춘추전국 시대부터 너도나도 제사를 지내고 죽은 조상에게까지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한국에서도 제사는 유구하다. 강화도 마니산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 제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군시대부터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은나라 때의 혼(魂)과 백(魄) 사상은 제사를 지내는 근본 원리를 제시한다. 사람이 죽어도 그 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그 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 혼은 육체가 없어도 죽은 것이 아니므로 음식을 차려놓고 살아있는 듯 공경하는 것이 제사이고 보면 우리 민족이 제사에 그토록 정성을 다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동이족이 세운나라 상나라 때의 갑골문에는 사람을 혼과 백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 동이족의 사상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본래 혼과 백의 결합체인데 죽으면 혼과 백으로 분리된다. 정신적인 요소인 혼은 승천하여 조상신의 대열에 들어서고 육체인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귀백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때의 혼백 사상은 주나라를 거쳐 춘추 시대로 이어져 공자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전해오는 제사가 근간이 되었고 우리 사회를 충과 효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권에 묶어놓고 있다.

한국인이 조상을 모시는 제사는 지금까지도 남아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로 보는 인내천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신을 아는 사람이 곧 하늘이고 신이다.



잉카의 제사장



태양제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2023년 6차 이사회 결과

일 시 : 2024년 1월 25일(목) 오후1시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성 원 : 총원 86명, 출석 69명, 위임 13명

출 석 : 유수찬 이사장, 최차열, 선종백, 백만종,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곽준석, 김명옥, 김문호, 김복순, 김부연, 김삼태, 김서윤, 김양호, 김영록, 김윤진, 김윤정, 김재업, 김정금, 김철수, 김춘도, 도성만, 민웅기, 박건태, 박경서, 박만석, 박석관, 박승호, 박인호, 박해섭, 백승의, 서진종, 설병갑, 손석윤, 송인호, 송재운, 신경애, 오만태, 오명숙, 오상관, 우기곤, 윤민식, 윤보상, 이내교, 이막래, 이성록, 이재수, 이점용, 이종석, 이창훈, 이창희, 이흥기, 임만덕, 임성동, 장창근, 전태만, 정연수, 정재문, 정종관, 정홍선, 조월신, 최복수, 최연근, 최영태, 최임순, 한용상, 한재원 이사

위 임 : 권영익, 김동철, 김화연, 손병호, 우숙자, 이명수, 이문균, 이연숙,

이윤순, 최성용, 하봉걸, 황길연, 황의출 이사

참 석 : 이경래, 이덕만 감사

1. 성원 보고 - 총원 86명 중 참석 69명, 위임 13명으로 성원

2. 개회인사말 - 유수찬 이사장

3. 전자회의록 접수 및 경과보고

- 회의록 접수 : 박만석, 이재수 이사 / 경과보고 : 김형준 사무처장

【경과보고】

2023. 12. 06. ~ 10.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2023. 12. 29. ~ 30.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성공개최 축하만찬

2024. 01. 10. ~ 16. 제3기 사진예술아카데미 작가과정 전시

2024. 01. 19. ~ 22. 정기감사 (회계감사 19일 / 행정감사 22일)

2024. 01. 23. 문화상 심의, 회원전 심사

2) 202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 - 승인

2024년 사업계획(안)

행 사 명	시 기
월간 한국사진 발행	2024년 연중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발행기금 조성	2024년 연중
전국사진강화 개최	2024년 연중
화원증 발행	2024년 연중
이달의 작가전	2024년 연중
지회 지부 설립	2024년 연중
행정 전산화(업그레이드)	2024년 연중
제42회 대한민국사진대전개최 및 전시	2024년 4월 ~ 6월
제61회 회원작품전시상전 작품집 발행	2024년 4월

4. 안 건

1) 2023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승인

- 이덕만 본부감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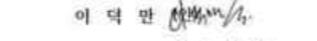
감 사 보 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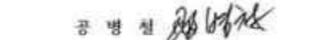
1. 감사 실시 현황
 - 감사 범위 : 한국사진작가협회 2023년도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감사 일정 : 회계감사 24년 1월 19일(금) / 행정감사 24년 1월 22일(월)
 -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진행

2. 감사보고
 - 정관 제17조 ①항 및 제28조 ④항에 따라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절차 및 청탁,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 되었습니다.
 - 회원 수의 축소와 고령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실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협회 운영기조와 규정변경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협회 재정상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사진예술 아카데미의 사진 작가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의 민족도를 높이고 강의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2일

감 사 이 경 래 

이 덕 만 

공 병 철 

2024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과 목	예산액	구 분	과 목	예산액
회 비	회비 1(일반)	550,000	인 건 비	급료	250,000
	회비 2(예비)	10,000		성과급	25,000
	입회비	100,000		제수당	30,000
	계 (A)	660,000		퇴직급여	25,000
협 찬 금	대한민국사진대전	10,000	운 영 비	계 (a)	330,000
	초대작가회 협찬금	15,000		복리후생비	40,000
	회원전 협찬	5,000		경조비	35,000
	한국사진 회보발행	500,000		집기비품비	15,000
	임원(이사, 지회_지부장) 직무향상	20,000		여비교통비	15,000
	사진축전 & 아트페어	150,000		제세공과금	20,000
	비너	20,000		통신비	21,000
				업무추진비	40,000
				판공비	20,000
				소모품비	15,000
사 업 비	대한민국사진대전	60,000	사 업 비	회비(임원 및 각위원회)	65,000
	국제사진 공모전	16,000		사무실관리비	4,000
	사진축전 & 아트페어	280,000		지급수수료	35,000
	회원전	60,000		도서인쇄비	5,000
	서울촬영대회	25,000		홈페이지관리비	10,000
	촬영지도자 연수(보수)	50,000		집비	10,000
	청소년 사진전	15,000		계 (b)	350,000
	사진아카데미 등 교육	400,000		대한민국사진대전	80,000
	임원(이사, 지회_지부장) 직무향상	20,000		운영자문위원회단회의비	30,000
	대한민국사진대전 도록 판매	37,000		사진축전 및 아트페어	350,000
기 타	지도자(강사)보수교육	50,000	기 타	국제사진 공모전	10,000
	작품집 판매	30,000		회원작품집발행	60,000
	계 (C)	1,043,000		자문위원 포상	50,000
	집이익	30,000		사진강좌	20,000
	계 (D)	30,000		2024년 PASK-AWARD	30,000
	총 계 (Z)=(A)+(B)+(C)+(D)	2,453,000		임원 (이사, 지회_지부장) 직무향상	40,000
				지부지원금	150,000
				창작지원금	10,000
				초대작가전시 및 작품집제작	30,000
				회보발행비 및 우편료	450,000
예 비	청소년사진공모전	13,000	예 비 비	청소년사진공모전	13,000
	행정전산화 업그레이드	30,000		행정전산화 업그레이드	30,000
	아카데미교육(전시, 도록, 교육비)	200,000		아카데미교육(전시, 도록, 교육비)	200,000
	자문위원 훈장 제작 및 수여	50,000		자문위원 훈장 제작 및 수여	50,000
	교육시설유지비	10,000		교육시설유지비	10,000
	우수분과지원금	15,000		우수분과지원금	15,000
	사진인의 날 행사	50,000		사진인의 날 행사	50,000
	인터넷방송 설립 준비	20,000		인터넷방송 설립 준비	20,000
	지도자(강사) 보수교육비	20,000		지도자(강사) 보수교육비	20,000
	촬영지도자 연수(보수)	30,000		촬영지도자 연수(보수)	30,000
기 타	계 (c)	1,748,000	기 타	집손실	10,000
	계 (d)	10,000		계 (e)	15,000
	예비비			총계 (Y)	2,453,000

3) 제63차 정기총회 개최 및 부의 안건 심의 건 - 승인

- 일 시 : 2024년 2월 25일(일) 13시

-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대 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정, 준회원

- 안건 : ① 감사보고 및 2023년 결산 승인의 건

②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③ 대상수각 처리의 건

④ 기타의 건

4) 문화상 심의 및 회원전 심사결과 보고 건 - 서면보고

① 제62회 한국사진문화상 심의결과

공로상	김생수 (동작구지부)	김도영 (전주지부)
	김호언 (울산지회)	윤상섭 (중구지부)
작품상	김선애 (남양주지부) - 가면무도회	
	배복형 (충주지부)	송재운 (광주지회)
출판상	백상현 (안산지부)	유병용 (서울)
	손병효 (밀양지부)	이정임 (괴산지부)
	손석윤 (평창지부)	정종관 (나주지부)
특별공로상	김일수 (준아트 대표)	이상오 (중구지부)
지회지부 발전공로상	과천지부	양천구지부
	광양지부	제천지부
	대전지회	창원지부
우수회원상	고명선 (구리지부)	송대건 (광주지부)
	곽재욱 (대전지회)	송창현 (의왕지부)
	권오일 (안동지부)	신명현 (청주지부)
	김도운 (평창지부)	이재수 (마포구지부)
	김명주 (구미지부)	이현채 (진주지부)
	김영수 (의정부지부)	장윤식 (서울)
	김정자 (과천지부)	장준복 (강서구지부)
	김팔영 (광주지회)	조자연 (안성지부)
	문방호 (광주지회)	채현석 (송파구지부)
	박윤지 (창원지부)	허정생 (양산지부)
	서능원 (안양지부)	

② 제61회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심사결과

우수작품상 수상자	
김상수 (용산구지부) - 희망	김선애 (남양주지부) - 가면무도회
김태동 (구리지부) - 등불	김하성 (강남구지부) - 성당
박병철 (정읍지부) - 밤하늘	박성문 (신안지부) - 흥
박성혁 (대구지회) - 외면	서세형 (진해지부) - 생업
신명현 (청주지부) - 귀로	유진희 (제주지회) - 반다불이
윤판문 (광주지회) - 선비출	이복규 (안동지부) - 유기작업
이미자 (남양주지부) - 도시의 흔적	이상순 (구미지부) - 흔적
이점용 (합천지부) - 작업	이종휘 (세종지회) - 기원
임혜숙 (홍성지부) - 유혹	정인호 (천안지부) - 우아한 모성
정태화 (시흥지부) - 침목	최영태 (광주지회) - 스펙터클
한서정 (송파구지부) - 곡선의 구성	황진이 (군포지부) - the moment of birth

5) 개선발전위원회 결과 보고 건

- 배액수 상임이사가 보고하여 접수하고 해당 내용을 3월 개최 예정인 전국 지회·지부장단 워크숍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6) 규정 개정의 건

■ 사진작품심사규정 개정안 – 승 인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방법) (2013.10.16 개정)	제4조(방법) (2024.01.25.개정)
① 협회와 국내의 광역시.도 지회 및 지부(이하 지회(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작품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모요강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협회와 국내의 광역시.도 지회 및 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사진 대전, 공모전 및 촬영대회의 작품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모요강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 지회 및 지부가 주관하는 공모전이나 촬영대회의 심사는 파일을 제출 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② 해외 지회·지부가 주관하는 공모전 의 심사는 파일을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③ 사진대전에서 전체수상을 확정하는 심사는 수상작의 1.5 배수 이상을 선정한 후 2차 심사부터 무기명 채점 방식으로 실시하고 입상자의 선정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2018.6.28. 개정)	③ 사진대전에서 전체수상을 확정하는 심사는 수상작의 1.5 배수 이상을 선정한 후 2차 심사부터는 무기명 비밀채점 방식으로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개정 전	개정 후
	④ 공모전부분 1. 1차 심사는 총 수상작의 1.5배수 이상을 합의된 방법으로 선정 한다. 2. 입상작 선정은 총 입상작 수의 2배 수 이상을 선정한 후 내리기 를 하여 입상작 수를 확정한 후 무기명 채점 방식을 통하여 등위를 결정한다. 단, 내리기는 무기명 방식을 통하여 결정한다.
	사유 : 문구수정, 공모전 및 촬영대회 입상작 선정 절차 명시
	제5조(상의 명칭) 협회에서 인준하는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상의 명칭(이하 상명)은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2013.10.16 개정) ① 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사진대전과 광역시.도 지회에서 주최하는 시.도 사진대전의 상명은 대상, 우수상, 특선(이상 '입상'), 입선으로 한다. ② 협회와 지회(지부)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일반 공모전과 촬영대회의 상명은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이상 '입상'), 입선으로 한다. ③ 타 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이나 촬영대회의 명칭 및 상명은 주최 기관의 의도 및 최고상격에 따라 이사회(의결)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7. 3. 29. 개정) ④ 본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지회(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모전과 촬영대회는 종전에 사용하던 행사의 명칭과 상의 명칭을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사진대전 및 광역시도 사진대전 이외에는 '대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단, ③, ④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상의 명칭) 협회에서 인준하는 대회 의 상의 명칭(이하 상권)은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2024.01.25.개정) ① 대한민국사진대전과 시·도 사진대전의 상명은 대상, 최우수상 , 우수상, 특선(이상 '입상'), 입선으로 한다. ② 일반 공모전과 촬영대회 의 상명은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이상 '입상'), 입선으로 한다.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제6조(상격 및 상의 수) 수상작품의 수는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로 하되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단, 대한민국사진대전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2013.10.16 개정) ① 대상, 우수상, 특선 및 입선으로 구분하는 경우 1. 대상 : 1점 2. 우수상 : 2점 3. 특선 : 수상작품 총수의 10% 이내 4. 입선 :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품 포함) ②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 및 입선으로 구분하는 경우 1. 금상 : 1점 2. 은상 : 2점 3. 동상 : 3점 이내 4. 가작 : 5점 이내 5. 장려상 : 5점 이내 6. 입선 :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품 포함) ③ 제5조 ③, ④항에 의거 상명이 다르게 결정된 경우
	제6조(상격 및 상의 수) 수상작품의 수는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로 하되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단, 대한민국사진대전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2024.01.25.개정) ① 대상, 최우수상 , 우수상, 특선 및 입선으로 구분하는 경우 1. 대상 : 1점 2. 최우수상 : 1점 3. 우수상 : 2점 4. 특선 : 수상작품 총수의 10% 이내 5. 입선 :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품 포함) ②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③ 좌동

개정 전	개정 후
1. 최고상이 대상인 경우 : ①항의 입상작품(대상, 우수상, 특선)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선은 입상 작품 포함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로 한다.	1. 최고상이 대상인 경우 : ①항의 입상작품(대상, 최우수상 , 우수상, 특선)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선은 입상 작품 포함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로 한다.
2. 최고상이 금상일 경우 : ②항의 입상작품(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상)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선은 입상작품 포함 출품작품수의 20% 이내로 한다.	2. 좌동
④ 본 규정에 없는 상(특별상등)은 입회자격이나 추천, 초대작가 점수의 산정 시에는 입선으로 처리한다.	④ 좌동
⑤ 관광공모전 수상작품 수는 주최 측의 의도를 반영하되 출품작품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선작 이상은 소정의 상금을 시상하여야 한다. (2017.10.26. 개정)	⑤ 좌동
⑥ 모든 상의 선정비율은 사사오입하여 정한다. 단 사진대전은 별도 규정에 따르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공모요강을 따른다. (2020.10.29 개정)	⑥ 좌동
⑦ 외부 기관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공모전, 촬영대회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013.01.31. 신설)	⑦ 좌동

사유 : 통상적인 정부 사상 내역과 동일하게 최우수상 상권 추가

부칙
1. 본 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신설)
2. 2017년 12월 31까지 시도 사진대전에서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한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국 심사자격을 부여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 개정안 – 승인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임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2013. 4. 25개정)	제7조(임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2024.01.25.개정)
제16조(선정) 심사위원회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6.10.28 개정)	제16조(선정) 심사위원회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한사전 초대작가 및 외부 심사자격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한사전 심사자격자 및 외부심사 자격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한다. 단,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심사자격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3배수로 추천한다. 단,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최종선임은 추천자 중에서 심사위원의 경력 및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대회장이 통보한다.
③ 최종선임은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 후 대회장이 통보한다.	③ 폐기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추천 및 초대작가) 한사전에는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 (2013.4.25 개정)	제19조(추천 및 초대작가) 한사전에는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 (2024.01.25.개정)
① 추천작가	① 추천작가
1. 추천작가는 한사전(국전포함)에서 수상점수 12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1. 좌동
2. 수상점수는 대상 5점,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으로 산정한다. (단, 1회 1작품만 인정)	2. 수상점수는 대상 5점, 최우수상 ,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으로 산정한다. (단, 1회 1작품만 인정) (2024.01.25. 개정)
3. 입회 5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로 지정 된 자는 한사전을 제외한 협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공모전의 심사자격을 갖는다. (2018.09.17 개정)	3. 좌동
4.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회원전(지상전)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점수 2점을 부여한다. 단 회원별 점수 부여는 1회로 한정한다.	4. 좌동
② 초대작가	5. 추천작가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전에 5회 이상 창작 작품을 출품하여야 초대작가 신청 자격을 취득한다. (2024.01.25. 신설)
1.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인준되어 5회 이상 한사전 초대전에 출품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후 추천작가상을 수상한 자는 초대전 출품 횟수 1회를 면제하고 적용은 1회로 한정한다. (2023.07.20. 개정)	② 좌동
2. 초대작가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및 한사전의 심사자격을 갖는다.	1. 좌동
③ 추천 및 초대작가는 한사전 초대전에 출품할 수 있다.	2. 좌동
제24조(시상) (2011.8.11 개정)	③ 폐기
① 한사전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선 이상의 작품을 '수상작품'으로 하고 '수상작품' 중 '대상', '우수상', '특선'은 '입상작품으로 한다.	제24조(시상)
② 수상자의 시상품은 이사장이 정한다. (2023.03.24 개정)	② 좌동
제25조(상격 및 상의 수) (2013.4.25 개정)	제25조(상격 및 상의 수) (2024.01.25. 개정)
① 공모부문 : 수상작품의 수는 출품작품 수의 20%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공모부문 : 수상작품의 수는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상 : 1점	1. 대상 : 1점
2. 우수상 : 2점	2. 최우수상 : 1점
3. 특선 : 수상작품수의 10%이내로 하고 수상비율을 다음과 같다.	3. 우수상 : 2점
(1) 인물, 다큐 부문(30%)이내	4. 특선 : 수상작품의 10% 이내로 하고 각 부문별 수상작은 부문별 출품 수에 비례하여 선정한다.
(2) 풍경, 생태부문(20%)이내	(1) 인물, 다큐
(3) 디지털창작 및 특수사진(20%)이내	(2) 풍경, 생태
(4) 관광, 스포츠(20%)이내	(3) 디지털창작 및 특수사진
(5) 기타(10%)이내를 고르게 선정한다.	(4) 관광, 스포츠
	(5) 기타

개정 전	개정 후
4. 입선 : 출품수의(20%) 이내로 하고 수상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인물, 다큐 부문(30%)이내 (2) 풍경, 생태부문(20%)이내 (3) 디지털창작 및 특수사진(20%)이내 (4) 관광, 스포츠(20%)이내 (5) 기타(10%)이내를 고르게 선정한다. (2) 초대부문 : 출품된 작품 중에서 초대작품상 5점 이내, 추천작품상 1점을 선정한다.(2022.11.03. 개정)	5. 입선 : 총 출품수의 20% 이내로 하고 각 부문별 수상작은 부문별 출품 수에 비례하여 선정한다. (1) 인물, 다큐 (2) 풍경, 생태 (3) 디지털창작 및 특수사진 (4) 관광, 스포츠 (5) 기타 (2) 좌동
사유 : 통상적인 정부 시상 내역과 동일하게 최우수상 상권 추가	
수상작 선정 기준을 부문별 '출품 비율'에 따라 선정하기 위한 개정 (제25조)	
부 칙 1. 협회 제32회(1995. 2)정기총회 이전까지 십걸상을 수상한 작품은 한사전 특선과 동일한 수상점수를 인정한다. 2. 동 규정 제19조 ①항 4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0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시도 사진대전 및 회원전 운영규정 개정안 – 승 인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수상점수의 산정) (2013.10.16신설) ① 사진대전 수상점수의 산정은 대상 5점,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으로 한다. ② 같은 해의 사진대전에서 2작품 이상 수상한 경우에는 상위 1작품만 인정한다.	제11조(수상점수의 산정) (2013.10.16.신설) ① 사진대전 수상점수의 산정은 대상 5점, 최우수상·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으로 한다. (2024. 01.25. 개정) ② 같은 해의 사진대전에서 2작품 이상 수상한 경우에는 상위 1작품만 인정한다.
제14조(수상작 선정) (2013.10.16개정) 1) 사진대전 ① 대상 : 1점 ② 우수상 : 2점 이내 ③ 특선 : 수상작품수의 10% 이내 ④ 입선 :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 포함) ⑤ 초대 및 추천 작품상 : 각 1점 ⑥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2) 회원전의 우수작품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수상한 자에게는 시도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하며 회원별 수상은 1회로 한정한다.(2022.09.22.신설) ① 출품인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3명 선정 ② 출품인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 %로 선정한다. ③ 본부에서 파견한 감독관 1인과 지회장이 추천한 심사자격자 2인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심사 후 작품집을 제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상작 선정) (2024.01.25. 개정) 1) 사진대전 ① 대상 : 1점 ② 최우수상 : 1점 ③ 우수상 : 2점 이내 ④ 특선 : 수상작품수의 10% 이내 ⑤ 입선 :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 포함) ⑥ 초대 및 추천 작품상 : 각 1점 ⑦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2) 좌동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사유 : 최우수상 상권 추가 따른 개정	

■ 광역시지회 운영규정 개정안 – 승 인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회계)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2020.07.30 개정) ① 일반회계 1. 회비 및 입회비가 회원으로부터 입금된 후 2개월 이내에 본부로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회장을 징계 규정 제14조 2항 2호에 의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 (2020.07.30 개정) 2. 제반 수수료 3. 간사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 4. 경조비 5. 보조금, 지원금, 기부금, 협찬금 6. 기타 사업수익금 ② 특별회계 1. 촬영대회, 공모전, 사진강좌 참가비 2. 기금조성	제27조(회계)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2024.01.25. 개정)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경조비 (단, 경조기금을 별도 조성하는 경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5. 보조금, 지원금, 기부금, 협찬금 6. 기타 사업수익금 ② 좌동 1. 좌동 2. 좌동 3. 국비 및 지자체 사업 보조금
사유 :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 분류	

■ 지부 운영규정 개정안 – 승 인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회계)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① 일반회계 1. 회비 및 입회비가 회원으로부터 입금된 후 2개월 이내에 본부로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부장을 징계규정 제14조 2항 2호에 의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 2. 제반 수수료 3. 간사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 4. 경조 5. 보조금, 지원금, 기부금, 협찬금 ② 특별회계 1. 촬영대회, 공모전, 사진강좌 참가비 2. 기금조성	제27조(회계)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경조비 (단, 경조기금을 별도 조성하는 경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5. 보조금, 지원금, 기부금, 협찬금 ② 특별회계 1. 촬영대회, 공모전, 사진강좌 참가비 2. 기금조성 3. 국비 및 지자체 사업 보조금
사유 :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 분류	

■ 촬영지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승 인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업무) ① 사진촬영대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② 사진촬영대회 규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진행 ③ 촬영대회 지도위원의 추천 ④ 사진촬영대회 운영을 위한 조언	제3조(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며 각 팀장은 부위원장이 분담해서 담당한다. 1. 교육팀 : 사진촬영대회 규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 진행 2. 홍보팀 : 위원회의 홍보 3. 행정 지원팀 : 경조 및 조직 관리 4. 운영팀 : 대회 운영 및 행사지원 관리 5. 회계팀 : 회계관리 ② 사진촬영대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③ 촬영대회 지도위원의 추천
제6조(임원의 선출)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단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사무국장 및 재무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좌 동
제7조(회의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이사회의 요청이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총원의 4분의 1 출석으로 성립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성원을 위하여 위임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통상 업무는 전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④ 정기총회는 1월 중에 실시한다	제7조(회의구분 및 소집) (2024.01.25. 개정)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정기총회는 1월 중에 실시해야 하며 총회 종료후 회의 내용 및 결산 자료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사유 :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 세분화	
부 칙	
1.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4년 01월 25일부터 실시한다.	

■ 사진촬영대회 운영규정 개정안 – 승 인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인준방법)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촬영지도자 인준 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서식1호)를 작성하여 소속 지회(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신청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인준방법) 제4조의 교육자격을 갖춘 자 중 촬영지도자 교육 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서식1호)를 작성하여 소속 지회(지부)를 통하여 신청하며 전 과정의 교육 수료자는 이사회에서 촬영지도자로 인준한다.
제13조(촬영지도자선정) 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촬영 지도자격 신규 인준자 및 인준자격 유지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주최·주관처는 협회에서 파견하는 감독위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촬영지도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2023.09.21.개정) ① 촬영지도자 선정 시 특정 기수를 1/20이상 선정 할 수 없다. ② 촬영지도자 비용은 거리, 시간, 난이도를 고려하여 주최주관처에서 30만 원~40만원 범위 내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촬영지도자선정) 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촬영지도 자격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주최·주관처는 협회에서 파견하는 감독위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촬영지도위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024.01.25.개정) ① 좌 동 ② 촬영지도자 비용은 거리, 시간, 난이도를 고려하여 주최·주관처에서 30만원~4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사유 : 문구 수정	
부 칙	
1.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 제정일 이전에 촬영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입회 5년 이상의 정회원은 촬영지도자 인준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향후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촬영지도자 인준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본 규정은 2024.01.25 부터 시행한다.	

7) 제42회 대한민국사진대전 개최의 건 – 개최 승인하고 상세요강은 이사장에게 위임

- 접수 일 : 2024년 4월 23일 ~ 25일
- / 접수장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 심사 일 : 2024년 4월 26일
- / 심사장소 : 추후공지

8)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최 및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

- 개최 승인하고 조직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에게 위임
- 개최일정 : 2024년 12월 2일(월) ~ 8일(일)
- 개최장소 : aT센터 제1전시장

9) 윤리조정위원회 보고의 건

- ① 남원지부 관련 진정 조사보고
 - 피진정인 김복순 : 경 고
 - 진정인 이수민 : 징계규정 제10조에 의거 추후 공지
 - 진정인 김병윤, 강동근, 권희동, 이윤모 : 경 고
- ② 상주지부 관련 진정 조사보고
 - 피진정인 이윤한 : 징계규정 제10조에 의거 추후 공지
 - 피진정인 남경환 : 징계규정 제10조에 의거 추후 공지
 - 피진정인 전영희 : 징계규정 제10조에 의거 추후 공지
- ③ 군산지부 관련 진정 조사보고 (피진정인 권병길)
 - 지부 예산 집행 관련 진정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
- ④ 심사횟수 초과 관련 진정 조사보고 (피진정인 임만덕)
 - 조사시작 전 피진정인이 반성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초임 이사로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실수한 점을 참작하여 '심사자격정지 3개월'로 결의

10) 자문위원 추대의 건 - 승 인

No	소속	회원NO	성명	입회일	적용
1	서울	11-4038	권순일	1994-01-19	입회 30년차 이상
2	서울	11-3951	방호석	1994-04-30	입회 30년차 이상
3	강서구지부	204-3662	양기준	1993-07-24	입회 30년차 이상
4	부산지회	12-5818	김천일	2000-01-28	입회 20년 이상, 임원 역임
5	인천지회	14-4191	원용호	1995-05-20	입회 30년차 이상
6	인천지회	14-4095	최종일	1994-12-10	입회 30년차 이상
7	제주지회	153-13452	오성조	1988-05-14	입회 30년차 이상
8	제주지회	153-3919	임재현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9	원주지부	30-3619	양정근	1993-05-22	입회 30년차 이상
10	광명지부	87-3973	박민석	1994-06-25	입회 30년차 이상
11	남양주지부	75-5768	김정혜	1999-12-17	입회 20년 이상, 한사전 초대작가
12	여주지부	74-4221	박성우	1995-06-17	입회 30년차 이상
13	여주지부	74-4217	황명준	1995-06-17	입회 30년차 이상
14	의정부지부	47-3737	김덕기	1993-10-23	입회 30년차 이상
15	구미지부	64-3844	이성석	1993-12-18	입회 30년차 이상
16	안동지부	51-5554	김재도	1999-03-20	입회 20년 이상, 공로상 수상
17	영주지부	65-3687	임칠순	1993-09-12	입회 30년차 이상
18	밀양지부	49-4089	하영삼	1994-12-10	입회 30년차 이상
19	함양지부	101-3873	박순복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20	함양지부	101-3882	홍동초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21	전주지부	23-3510	최원철	1992-11-14	입회 30년차 이상
22	나주지부	59-3864	김근영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23	나주지부	59-3694	김성희	1993-09-12	입회 30년차 이상

11)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의 건 - 승 인

번호	성명	취득내역	상장점수	지역	비고
1	김윤설	특선 1회, 입선 3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 우수작품상,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12점	광 주	전국심사자격자
2	권경애	특선 1회, 입선 4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경상북도 사진대전 초대작가	12점	구 미	전국심사자격자
3	김서윤	특선 1회, 입선 4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 우수작품상	12점	제 천	

12) 심사자격자 인준의 건

① 전국심사자격자 인준의 건 - 승 인

번호	성명	입회일자	자격 기준	구 분	소속	비고
1	김서윤	2015-03-26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1월 25일)	전국심사자격	제 천	
2	정원숙	1998-05-22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서 울	
3	장준복	2001-10-26	공모전 200점 이상 취득, 회원전5회출품, 한사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강서구	
4	김형도	2014-04-25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동대문구	
5	구미숙	2014-11-05	공모전 200점, 회원전 5회 출품,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양천구	
6	문제민	1990-09-15	입회 20년차 이상, 강의경력20년이상	전국심사자격	양천구	
7	김강순	2009-03-26	공모전 200점, 회원전 5회 출품,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대 구	
8	성용학	2013-12-11	대전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대 전	
9	김진자	2014-09-18	대전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대 전	
10	주철민	1984-02-11	입회 20년차 이상, 강의경력 20년이상	전국심사자격	부 산	
11	김형수	2012-11-22	울산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4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울 산	
12	황병률	2012-11-22	울산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울 산	
13	장택호	2007-06-28	제주도사진대전 초대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제 주	
14	김병철	2012-09-26	강원도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원 주	
15	조월신	2008-01-24	경기도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과 천	
16	조규일	2004-11-30	경기도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시 흥	
17	안동성	1994-11-09	경기도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용 인	
18	이전훈	2010-01-21	경상북도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구 미	
19	박옥자	2011-01-27	경상북도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4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안 동	
20	이인구	2000-09-22	경상남도사진대전 초대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창 원	
21	김동욱	2012-06-28	전라남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순 천	
22	박정희	2010-11-25	전라남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신 안	
23	윤원기	1999-06-24	공모전 200점, 회원전 5회 출품,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제 천	
24	임원빈	2002-01-30	충청북도사진대전 초대작가,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충 주	
25	김혜진	2013-03-23	공모전 200점, 회원전 5회 출품,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워싱턴	

② 지역심사자격자 인준의 건 - 승 인

번호	성명	입회일자	추천 · 초대작가 지정일	구 분	소속	비고
1	문방호	2013-10-16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1.12.23.	전국심사자격	광 주	
2	박판술	2009-03-26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3.11.22.	전국심사자격	광 주	
3	유진석	2001-12-19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3.11.22.	전국심사자격	광 주	
4	이재권	1995-10-28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3.11.22.	전국심사자격	광 주	

5	최진양	2007-12-20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3.12.21.	전국심사자격	울산	
6	김도환	2000-07-21	강원도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3.12.05.	전국심사자격	태백	
7	김택기	2013-10-16	강원도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3.12.05.	전국심사자격	태백	
8	김영찬	2001-05-30	경상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3.12.08.	전국심사자격	경산	
9	김경중	2000-11-24	경상남도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3.08.27.	전국심사자격	마산	
10	박선임	2006-11-23	전라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3.08.26.	전국심사자격	전주	
11	정연식	2010-11-25	전라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3.06.29.	전국심사자격	전주	
12	류정선	2013-04-10	전라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지정일:2023.06.29.	전국심사자격	정읍	
13	이재윤	2014-11-20	충청북도 사진대전, 초대작가지정일:2023.08.20.	전국심사자격	청주	

13) 자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인준의 건 - 승인

〈임원〉

전북도지회 : 사업간사 - 박선임, 정연식, 최경진

부산지회 : 부지회장 - 배종열 섭외간사 - 김상덕

교육간사 - 조순덕, 류민형, 권태영 기획간사 - 이석진

서대문구지부 : 사무국장 - 이관희

삼척지부 : 사무국장 - 전중철 재무간사 - 김영철

양주지부 : 지부장 - 전동백 부지부장 - 김진, 신동현

지부감사 - 강재성 사무국장 - 나현희

행정간사 - 장선애 재무간사 - 손용자

홍보간사 - 김재근 기획간사 - 이태곤

문화간사 - 변은숙 운영간사 - 이서현

안동지부 : 홍보간사 - 이철숙

신안지부 : 홍보간사 - 범은혜

청주지부 : 사무국장 - 최병주 연구간사 - 박은영

[2023년 12월 28일 추인]

〈입회〉 - 15명

광주 : 김대중(정), 오기종(정), 이한우(정)

대전 : 오미숙(정), 강혜영(정), 유현숙(정), 윤여운(정), 인병열(정)

인천 : 변명숙(정), 이기영(정)

제주 : 기경희(정), 김성권(정)

구리 : 김미숙(정)

구미 : 장경숙(정)

홍성 : 정성태(정)

〈승격〉 - 9명

원주 : 원미영

춘천 : 박용국

여주 : 임승일

구미 : 박미현, 이정애

안동 : 김상수, 이철숙

창원 : 김명성, 김석동

〈복권〉 - 11명

양천구 : 김재선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광주 : 김숙현 - 회비미납제명 / 완납복권

양우석 - 회비미납제명 / 완납복권

염광열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정후근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부산 : 양희문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최희숙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용인 : 김종철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목포 : 김영제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김준수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정현석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동두천 : 이경희(정), 흥석태(정)

안산 : 김정숙(준), 주순자(정)

용인 : 이성인(정)

파주 : 공진희(정), 송원용(정)

평택 : 손정수(정)

경주 : 김광민(정)

안동 : 김중옥(준), 이상택(정), 이종택(준), 최규리(준)

고성 : 김미숙(정)

통영 : 이형옥(정)

하동 : 형정숙(정)

정읍 : 기노준(정), 방종현(정), 한수영(정)

강진 : 김광섭(정)

여수 : 윤순철(정)

장흥 : 한아름(정)

음성 : 조승희(정)

진천 : 김경화(정), 이문옥(정), 임효진(정), 정숙경(정), 정연정(정), 최미정(정), 한진숙(정)

공주 : 김현기(정), 이창선(정)

태안 : 백정흠(정)

〈승격〉 - 13명

광주 : 노정후

울산 : 강병우, 송채운, 신재명, 최순금

광주경기 : 주영도

안양 : 장옥선

여주 : 엄경숙

경주 : 지동석

고성 : 김금선, 정규석

고창 : 김형학, 박경운

〈복권〉 - 7명

노원구 : 조갑중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대구 : 전순희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정은숙 - 회비미납제명 / 회비완납

진주 : 남혜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청주 : 정상용 - 회비미납제명 / 회비완납

공주 : 권세옥 - 회비미납제명 / 회비완납

거제 : 옥세희 - 회비미납정권 / 회비완납

14) 입회점수 인정기관 승인의 건 - 승인

번호	강사	자격번호	기관명	지역	강좌명	시수
1	민웅기	제2021-0140호	민웅기 사진교실	대구	예술사진 연구반	15주/30시간
					예술사진 종급반	15주/30시간
2	박만석	제2023-지도3기28호	한국예총 시흥지회	고흥	사진교실	15주/60시간

15) 기타의 건

① 사진예술아카데미 작가과정 4기 모집 독려

② 촬영지도위원회 보수교육

- 일정 : 2024년 3월 9일 ~ 10일 / - 장소 : 추후공지

- 대상 : 현재 회원으로서 촬영지도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도위원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5기 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신규 6기 모집은 2025년에 진행

③ 국제공모전 참여 독려 요청

④ 서울특별시지회장 사퇴 보고

- 지회장의 사퇴에 따라 사정변경이 있을 때 까지 이사장이 겸임하기로 함

⑤ 서울소속 회원지부 편입

- 전국 지회지부장단 워크숍에서 논의하기로 하며 서울시지회 운영 규정 부칙 제2항 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연기하기로 결의

⑥ 사진인의 날 제정

- 세부사항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에게 위임함

13) 자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인준의 건 - 승인	구미 : 박미현, 이정애
〈임원〉	안동 : 김상수, 이철숙
전북도지회 : 사업간사 - 박선임, 정연식, 최경진	창원 : 김명성, 김석동
부산지회 : 부지회장 - 배종열 섭외간사 - 김상덕	
교육간사 - 조순덕, 류민형, 권태영 기획간사 - 이석진	
서대문구지부 : 사무국장 - 이관희	
삼척지부 : 사무국장 - 전중철 재무간사 - 김영철	
양주지부 : 지부장 - 전동백 부지부장 - 김진, 신동현	
지부감사 - 강재성 사무국장 - 나현희	
행정간사 - 장선애 재무간사 - 손용자	
홍보간사 - 김재근 기획간사 - 이태곤	
문화간사 - 변은숙 운영간사 - 이서현	
안동지부 : 홍보간사 - 이철숙	
신안지부 : 홍보간사 - 범은혜	
청주지부 : 사무국장 - 최병주 연구간사 - 박은영	
[2023년 12월 28일 추인]	
〈입회〉 - 15명	
광주 : 김대중(정), 오기종(정), 이한우(정)	
대전 : 오미숙(정), 강혜영(정), 유현숙(정), 윤여운(정), 인병열(정)	
인천 : 변명숙(정), 이기영(정)	
제주 : 기경희(정), 김성권(정)	
구리 : 김미숙(정)	
구미 : 장경숙(정)	
홍성 : 정성태(정)	
〈승격〉 - 9명	
원주 : 원미영	
춘천 : 박용국	
여주 : 임승일	
13) 자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인준의 건 - 승인	2024년 1월 22일 심의]
〈입회〉 - 50명	
마포구 : 최은연(정)	
서초구 : 김현표(정)	
송파구 : 방인철(정)	
광주 : 장정순(정)	
대전 : 권효성(정), 조연희(정), 조현숙(정)	
부산 : 이상훈(정)	
울산 : 김옥경(정), 김용원(정), 서인수(정), 송민서(정), 임지영(정)	
제주 : 오길숙(정)	
속초 : 장월선(정)	
춘천 : 옥기영(준)	
태백 : 이경직(정)	

학술평론분과위원회 – 무열왕릉 탐사촬영기

글·사진_심상섭(학술평론분과위원회 위원, 양산지부)

나에게 문화유적은 설렘이다. 멋진 유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그런 세월이 참으로 많이 흘렀다. 그러한 가운데 경주의 매력에 빠지면서 이제 틈만 나면 나의 발걸음은 경주로 향한다.

경주는 천년고도였기에 도시 전체가 '노천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문화유적이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경주의 문화유적을 모두 답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상은 소요된다. 그 수많은 유적 중에서 신라 제29대 왕인 무열왕릉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김춘추는 진평왕의 둘째 딸인 천명공주의 아들이며, 부인은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이다. 성골과 진골은 모두 왕족이지만, 초기의 골품제도에서는 성골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김춘추는 김유신의 힘을 빌려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왕위에 올라 무열왕이 된다.

무열왕은 백제 및 고구려와 전쟁을 치르면서 전제 왕권을 확립시킨다. 이런 과정에서 8세기 후반 혜공왕 때까지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열왕부터 혜공왕까지의 시기를 '신라 중대 사회'라 부른다.

무열왕릉은 선도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경주에는 수많은 왕릉급 무덤들이 있지만, 그 무덤의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무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증거 없이 간단한 기록 등을 참고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열왕릉은 무덤의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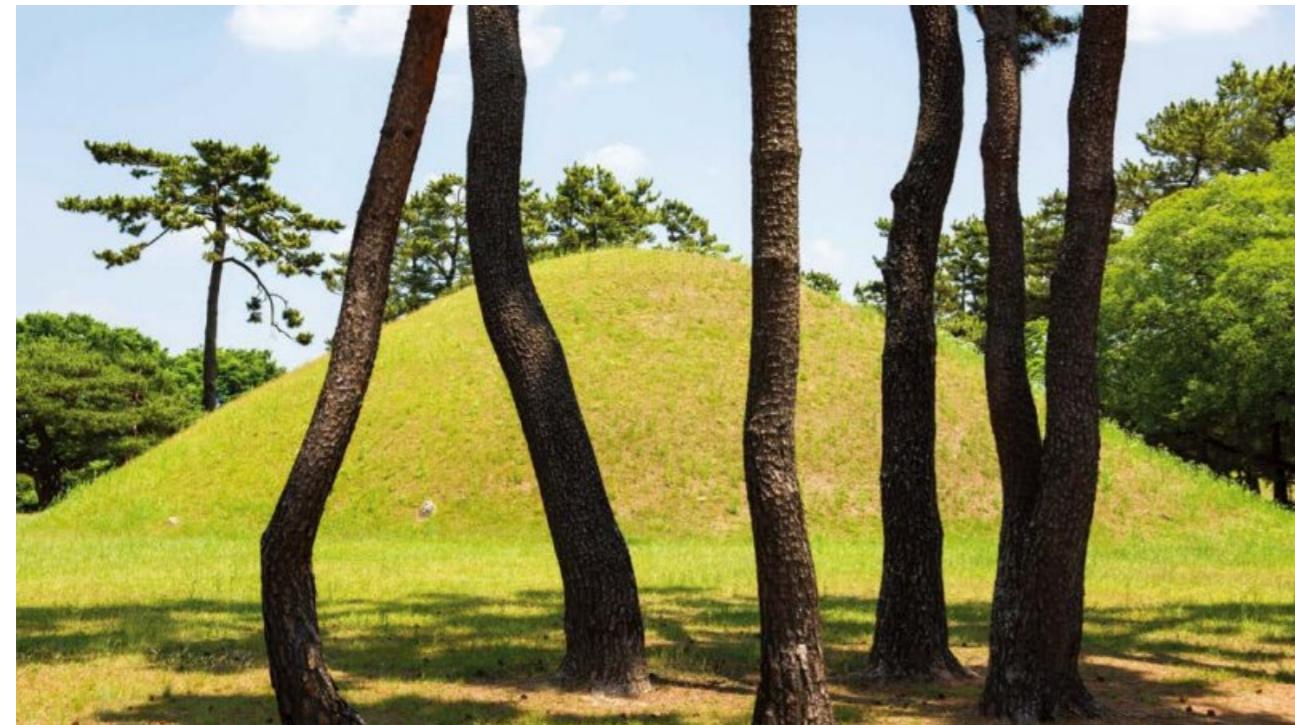
현재 무열왕릉에는 비석의 귀부와 이수가 남아 있다. 귀부는 거북이 모양으로 된 비석의 받침돌을 말하며, 이수는 용이 새겨져 있는 머릿돌을 말한다. 내용이 새겨지는 비석의 물체를 '비신'이라 하는데, 무열왕릉의 비신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수의 앞쪽 가운데 부분에 '태종무열대왕지비'라 새겨진 글자

가 있어, 이 무덤의 주인이 '무열왕'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무열왕릉비의 이수와 귀부는 신라의 예술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받침돌인 귀부는 거북이가 머리를 치켜들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또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일반적인 거북이의 발가락은 앞뒤가 모두 다섯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무열왕릉의 귀부는 뒷 발가락이 넷으로 되어 있다. 이를 수차례 찾아간 후에야 알게 되었다. 문화재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했지만, 신라 장인의 섬세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뒷 발가락을 넷으로 한 것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거북이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는 뒷발의 엄지발가락을 안으로



무열왕릉

밀어 넣는 습성이 있어 넷으로 보인다. 그런 습성까지도 반영한 것에 감탄을 하게 된다.

머릿돌인 이수에는 앞면과 뒷면에 각각 한 쌍씩의 용이 여의주를 받들고 있다. 그런데 측면에서 보면 양쪽에 3마리씩의 용머리가 조각되어 있다. 따라서 가운데 용은 몸체가 거의 없이 머리 부분을 중심으로 조각되어 있지만, 이수에는 총 6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는 셈이다.

사실 신라 최고의 걸작으로 알고 있었지만, 왜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지 잘 몰랐다. 그러

던 어느 봄날,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이유를 눈으로 실감하게 되었으며, 조각품은 빛의 예술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낮에는 전각 때문에 이수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 멋진 모습만 볼 수 있다. 나 역시도 수차

례 갔었지만, 이런 멋진 모습만 봤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봄날 일몰 시간에 이수에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다.

용의 비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살아 움직일 것 같은 힘이 느껴진 것이다. 또 여의주를 받치고 있는 모습, 발톱의 예리함, 발목의 근육질 등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면 서 감탄을 자제할 수 없었다.

이 이수를 만든 신라 석공은 조각품은 빛의 예술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즉, 생명력이 살아나는 빛의 방향을 정확히 계산하고 만든 것이다. 이처럼 치밀한 예술적 감각을 가진 신라 석공을, 나는 존경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멘토는 신라 석공이다.



무열왕릉비 이수와 귀부



무열왕릉비 이수 | 빛이 들어온 모습



귀부 | 거북이 뒷 발가락



무열왕릉비 이수 | 빛이 없는 모습

회비납부 안내 사항

만녕하십니까? 회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진년 새해에도 늘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4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지부에 납부)

지회·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연회비 10만원 본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문의 및 회비담당 : 재무팀장 조윤숙(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증정(회원님들의 회비 등으로 제작)

· 공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적차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0대 특수사진분과 정기총회 및 신년업무 보고회

제30대 특수사진분과는 2024년 1월 21일(일) 충북 청주의 대청호반에 위치한 청풍미가에서 모임을 가졌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영록 이사, 김춘도 이사, 신경애 이사, 이재수 이사 등 40여 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하여 정기총회 및 2024년 신년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재규 사무국장의 사회로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정기총회 및 신년업무 보고회는 채석근 위원장의 인사말과 일정안내, 사업결과 및 감사 결산 보고, 신년업무 안내 및 협의, 기념사진 촬영 순서로 이어졌다.

채석근 위원장의 제안과 23년 특수사진분과 교육간담회(23.11.11) 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중 일반 공모전 사진을 벗어나 특수사진의 대중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1회 특수사진 전국공모전 개최, 2024 대한민국 사진축전에 특수사진분과만의 부스를 설치하

여 분과 회원들의 장노출 사진 전시, 특수분과 전체의 단합대회 및 조별 분기별 1회 이상 출사개최, 조별 출사를 더욱 권장하며 분과 전체의 번개 출사도 종종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정식으로 점심을 마친 후 특수사진분과 기념사진 촬영, 분과에서 제공한 기념 타올과 정상윤 부위원장께서 기증한 영광 모시떡을 한 박스씩 안고 각 조별 번개 출사지로 청남대, 대청호 오백리길 영화 촬영지를 거쳐 귀향하였다.

이번 정기총회 및 업무보고회를 통하여 특수사진분과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안건 제시와 특수사진분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사진의 깊이를 한층 높이려는 회원들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제30대 특수사진분과 정기총회 및 신년업무 보고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자 보수교육 공고

사진촬영대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의거

2024년 촬영지도자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교육일정 : 2024년 3월 9일(토) ~ 10일(일)

교육장소 : 추후공지

교육대상 : 현재 회원으로서 촬영지도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도위원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 pask@pask.net)

- 성명, 소속, 연락처 기재하여 이메일로 접수

교육비 : 30만원 * 입금계좌 878301-01-272899 /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문의 : 02-2655-3131 / 010-8771-3319 (이성록 위원장)



우수작가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성공 개최 축하 만찬식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지난 29일 오후3시, 온양관광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성공 개최 축하 만찬회를 김형준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160명이 참석하여 개최했다.

내빈으로 대회 조직위원장이자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최자열, 선종백, 이향룡, 김시록 부이사장, 이덕만 감사,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박옥수 자문위원, 흥창일, 정건영 전 부이사장, 김정환, 윤상섭 자문위원, 한명순 한국예총화예협의회 이사장의 소개가 있었다.

유수찬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사진진흥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해서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사진진흥법은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것이 첫 번째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롯이 사진학과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전에는 사진학과 교수들이 우리 협회에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사진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1년 과정 사진아카데미에서 사진의 방향성에 관해서 더 충실히 교육도 할 것이고 사진작가의 지위가 향상되고, 확고히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30대 집행부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1970년 서울사진 특별전에 관여했던 박옥수 자문위원은 "사진장이는 사진으로 말해야 한다고 작가를 받은 것이지 카메라 오래 가졌다 뭘 자랑하느냐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전으로 협회에서 저에게 큰 선물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에 큰 도움을 준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과 김광재 춘천지부 감사에게 이범현 한국예총회장이 표창장을 주었다. 한국예총화예협의회 한명순 이사장에게 유수찬 이사장이 감사패를 증정했다.

축전에 참가한 권인순(대구), 김덕희(제주) 작가에게 최자열 부이사장, 김재영(상주), 석도상(산청) 작가에게 선종백 부이사장, 안성숙(동대문



특별전 소감을 얘기하는 박옥수 자문위원

다음은 간담회의 참석자들의 대담 내용이다.

김시록 부이사장 대한민국 사진축전은 우리 협회가 주최하는 최대 단일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SETEC에서 전시를 시작해서 국내 유일의 대형 Photo Festival 행사입니다. 제1,2회는 SETEC에서 진행되었고, 제3,4회는 COEX에서, 제5,6,7회는 DDP에서, 이번 제8회는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진행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쉬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은 쉬었습니다. 2023년이 제8회가 되었지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의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 행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유일한 최대 포토페스티벌 행사로 자리 잡게 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대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시에서 용역 인원을 통해서 관람객 수를 일일이 체크했는데 약 7,500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수찬 이사장 저는 제 임기 동안 매년 500만 원을 내놓고 10점씩 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사주셔야 합니다. 운영의 전문성 결

여를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시설을 모두 적었다가 전문가에게 시킬 때 그대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덕희 회원 우수작가상 수상작을 시상식 때 스크린에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전시장 부스가 좀 작게 느껴졌습니다. 전시장이 미로 찾기 같았습니다.

유수찬 이사장 부스의 크기를 늘렸습니다. 도면이 잘못 그려졌다고 했습니다. 수상 작가의 작품을 띄워주는 것 좋은 생각입니다.

이호연 회원 홍보의 부족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만나서 지하철에 광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김시록 부이사장 5대 일간지에 광고를 신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방송 쪽은 더더구나 불가능합니다. 종편 쪽에 자막광고라도 생각했지만, 넘너지 않은 예산 때문에 포기하고 대신 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고 지역 인터넷신문에 최대한 홍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찬 이사장 동아일보를 통해 홍보할까 했는데, 신문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종편 방송이라도 해보려 했고, 언론인협회와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활동을 전혀 못 했습니다. 내년 1월 이사회에서 내년 축전에 관한 조직위원회 구성에 들어갑니다. 종편에 자막 방송이라도 해볼까 합니다.

박승호 회원 부스가 생태관, 환경관, 창작관 등으로 분류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분류했으면 좋겠고, 어디서부터 둘러봐야 하는 흐름이 있는데 한쪽이 막혀 있다 보니 동선도 헷갈리고 흐름도 만들면 단점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수찬 이사장 올해도 장르별로 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는 집행부에서는 부스 파는 게 급하고, 작가가 돌아가면서 지켜야 하니까 한곳으로 몰아달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하면서 사진을 감상해야 하는데 파는 사람은 장사가 돼야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점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위원회가 늦게 출범한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홍보를 미리 만들어서 흠피에도 올리고, 전시한다는 글을 올리자고 합니다. 제가 전문 홍보위원회를 만들었고, 별도로 위상을 월등히 높였습니다. 전에는 분과 취급했지만, 지금은 저희 협회 공식 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더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장준복 위원장 우리 작가협회 회원이 전국에 1만 2000명이 있고, 2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20개 분과가 50명씩만 쳐도 1000명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사진은 너희가 걸어라. 우리가 평수는 제공하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한두 점씩만 걸어도 한 분과가 50명이 걸게 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되면 200명보다 1000명이 실질적인 결과물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사진진흥법에 결부시켜서 '사진인이 정도인데 왜 안 해주느냐?'고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입니다.

김시록 부이사장 분과의 작품을 발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예산 문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예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마조마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1억 원 이상 받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사진진흥법이 통과되고 정부 예산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하고, 더 많은 분을 모셔서 더 넉넉한 예산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작품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홍창일 전 부이사장 가장 중요한 게 판매가 목적일 텐데,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도, 사진축전의 발전을 위해서도 어떠어떠한 작품이 판매가 됐는지 조사해서 어떠어떠한 사진이 판매에 유리한가, 다음해 출품할 때는 어떠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했으면 좋겠다는 제사는 있어야 되겠고요. 예산 관계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것은 그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 맡기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찬 이사장 작품이 많이 팔리는 것을 봤습니다. 특이한 기법으로 촬영한 작품은 많이 팔렸습니다. 물론 팔아야 하기 때문에 부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답변 했다.

행사를 마치고 앉은 자리에서 전면을 보고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오후 6시부터 뷔페식으로 만찬을 들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글 : 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자문위원) 사진 : 오건호(홍보위원회 위원, 보도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 ①감사패 증정 후 기념촬영(사진 맨 왼쪽부터 이영숙 작가, 김시록 부이사장, 조규섭 지부장)
- ②감사패 증정 후 기념촬영(사진 맨 왼쪽부터 김재영 위원장, 선종백 부이사장, 석도상 지부장)
- ③감사패 증정 후 기념촬영(사진 맨 왼쪽부터 문제민 위원장, 유수찬 이사장, 김광재 춘천지부 감사)
- ④감사패 증정 후 기념촬영(사진 맨 왼쪽부터 권인순 작가, 최자열 부이사장, 김덕희 작가)
- ⑤감사패 증정 후 기념촬영(사진 맨 왼쪽부터 안성숙 작가, 이향룡 부이사장, 연도흠 작가)
- ⑥만찬 전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과 행사장에서의 단체기념촬영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4년 1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기타 계 : 58,572,922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29대 누계) 12,039(30대 누계)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12,972,663 (30대 누계)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 34,884,702 계 : 1,144,774,388(a)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입회자 발전기금 계 : 288,200,000 (2,882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 100,900,000	
④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⑤ 2021년 계 : 27,700,000	
⑥ 2022년 계 : 32,200,000	
⑦ 2023년 계 : 16,900,000	
⑧ 2024년 계 : 5,000,000	
▷ 2024년01월(50명): 5,000,000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영자(진해)회원 별세

별세 2023년 12월 4일 발인 2023년 12월 6일

스비스섬제주

사진작품 촬영

홈 : photojeju.com



제주도 촬영 안내

제주 촬영 오실 때 4명까지 삼각대 4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노출 지도 및 풍경 촬영 실시간 포인터 안내 오전과 오후
차량 : 쏘렌토 5인승 (1명~4명까지 차량 포함) 하루 20만원
차량 : 9인승 승합차 (5명~7명까지 차량 포함) 하루 30만원
[개인 스토리 작업 촬영 전문 개인전시 및 작품집 별도 문의]
제주도 풍경 촬영 가이드 권 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축하합니다

(2023년 12월, 2024년 1월 입회자)



최은연(마포구,정)



김현표(서초구,정)



방인철(송파구,정)



장정순(광주,정)



권효성(대전,정)



조연희(대전,정)



조현숙(대전,정)



이상훈(부산,정)



김옥경(울산,정)



김용원(울산,정)



서인수(울산,정)



송민서(울산,정)



임지영(울산,정)



오길숙(제주,정)



장율선(속초,정)



옥기영(춘천,준)



이경직(태백,정)



이경희(동두천,정)



홍석태(동두천,정)



김정숙(안산,준)



주순자(안산,정)



이성인(용인,정)



공진희(파주,정)



송원용(파주,정)



손정수(평택,정)



김광민(경주,정)



김종욱(안동,준)



이상택(안동,정)



이종태(안동,준)



최규리(안동,준)



우리의 멋-線과 色

박균희 개인전



우리나라 전통의상인 한복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적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 아름다움의 기초는 색과 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색과 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오방색과 빗살무늬다. <중략>

또한 전통적인 춤과 한복의 아름다운 색과 선을 보여주고자 한지의 전통문을 배치하였다.
전통적인 나연의 천과 한복을 입고 주는 전통 춤의 미를 강조하고자 흔들림 효과를 사용하였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4년 2월 18일(일) ~ 2월 24일(토) (관람 오전11시 ~ 오후6시)

전시장소 갤러리 예지향(경기 의왕시 찬우물1길 15 1F)

작가와의 만남 2024년 2월 19일(월) 오후3시

전시작가 박균희



흐르는 삶 - 전철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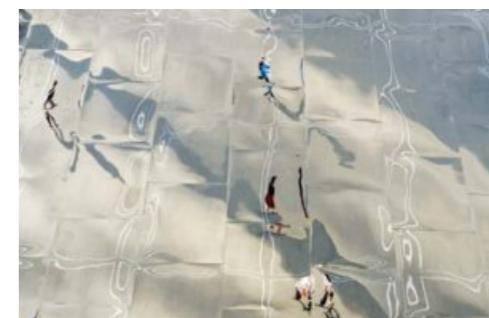
서경자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3월 27일(수) ~ 4월 1일(월) (관람 오전10시30분~오후6시)

전시장소 갤러리 라메르 1F 제2전시실

전시작가 서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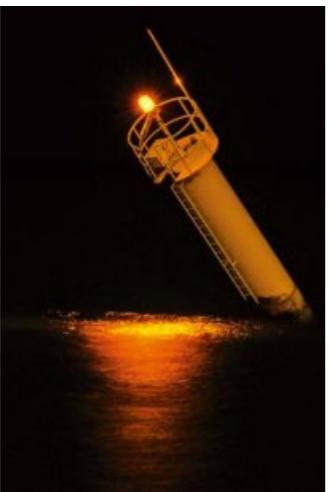
도시의 삶은 항상 흘러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 누구도 올바른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끝데없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삶을 이어 간다. <중략>



어느 날 메시지 하나가 나의 일상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 세운다. 여태 걸어왔던 길과 다른 생소한 길.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야 할 길.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도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닐까?
나를 정직하게 보려면 시점을 바꿔야 한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한다.
거울은 정직하다. 높은 곳에 매달린 거울을 보며 살자. <작가노트 중에서>

제주 바당 - 그 생명의 빛

김두철 두 번째 사진전



전시일시 2024년 3월 16일(토)~3월 21일(목)
전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전시오픈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3시
전시작가 도현(都炫) 김두철

거친 파도가 세운 바다의 빛기둥이다
검은 바다가 쏘아 올린 한 줌 별이다
등대는 흐른다
파도의 시간이 묻어난 바위에도
전혀 달을 것 같지 않은 희망에도
갈 곳 잃어 출렁이는 마음들에게도
등대는 전한다 〈중략〉
스스로 몸을 밝히고, 스스로 빛을 내주는
그 바다의 등이 어느 날 내게로 왔다
등대의 바다, 바다의 등대가 내게로 왔다
바다 위 흐르는 내 마음 앞에 〈작가노트 중에서〉



상(狀)과 상(象)

박정숙 개인전

1차 전시일시 2024년 2월 14일(수) ~ 2월 26일(월)
1차 전시장소 마루아트센터 신관3F 3관(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5-4)
2차 전시일시 2024년 4월 1일(월) ~ 4월 30일(화)
2차 전시장소 탄갤러리(충남 대전시 서구 148, 5F)
전시작가 박정숙

내 속에 들어와 상(象)이 된 그들을 사랑한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늘 그 자리에 서서 내게 울림을 주던
'상(狀)'과 '상(象)'들... 〈중략〉
나무를 촬영하며 분주했던 나날들이 떠오른다.
한 순간도 헛되지 않았던 시간들,
카메라 앞에서, 작업실 안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난 늘 깨어있어 행복했다.
자옥자옥 쌓아 올린 나의 삶이고 역사이고 사랑인 나의 분신들
감히, 내 분신들을 많이 사랑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작가노트 중에서〉



영혼의 파노라마 – Panorama of the Soul

김정식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3월 18일(월)~ 3월 25일(월)
전시장소 가천대학교 전시관, 비전타워 B1
전시오픈 2024년 3월 18일(월) 오후5시
전시작가 김정식



침묵으로 허락했던 시간들

굴곡진 삶의 여정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앞에서
바다만 고집하며 카메라에 담아 온 세월이 얼마나 아득하기만 합니다.
바다에 몸 던지고 사는 내게는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꿈을 키우게 한 바다는
나의 고향입니다. 〈중략〉

노력한 결실들이 다 좋을 수는 없지만,
사진예술을 통하여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을 재조
명하고 싶었습니다.
庸劣하지만, 바다의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작가노트 중에서〉



신라 중약 되살아나다

강원원 특별사진전

전시일시 2024년 2월 13일(화) ~ 2월 18일(일) (관람시간 10:00~18:00)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전시후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시작가 강원원

팔공산 국립공원, 군위군 편입기념 특별사진전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후
원으로 강원원 특별사진전을 개최합니다. 팔공산 그 진은 역사와 경승의
향기를 이번 특별사진전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Pearl of the East–Sri Lanka, 동양의 진주–스리랑카

박대병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2월 21일(수) ~ 2월 27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마루갤러리 2F 제5전시실
오픈식 2024년 2월 22일(목) 오후5시
전시작가 박대병

인도양에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 스리랑카는 팔코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도 반도의 남동해안과 마주 보고 있으며, 옛 이름은 실론(Ceylon)이다. 과거 오랜 영국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는 아직 유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지중해의 바다 풍경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도시와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시기리야(Sigiriya) 바위 요새 등〈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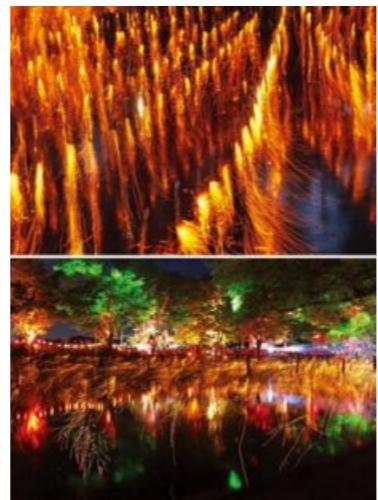
스리랑카 전역은 희귀 새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인아치 브리지(Nine Arches Bridge)등 아름다운 나라로 친란히 빛나는 "동양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명사회 30주년 기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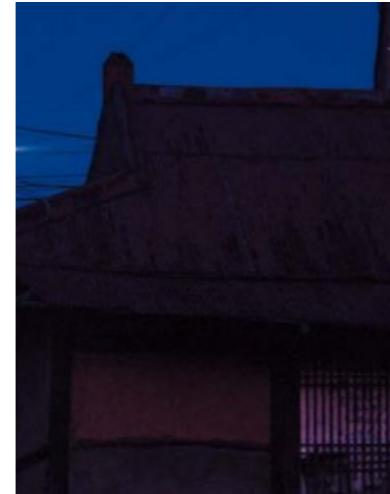
전시일시 2024년 3월 5일(화) ~ 3월 10일(일)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제1~2전시실
전시작가 임종복, 신호억, 손홍식, 류성진, 강인규
장영규, 김강순, 류경학, 이철순, 현영미

명사회 30주년 기념전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 주제전, 대구사진작가동우회 합동전 참여 주제전, 명예회원 작품전으로 구성되어 전시가 됩니다.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초혼 – 初昏

박경순 6번째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1월 13일(화) ~ 1월 18일(일)
전시장소 공간 미끌(서울 종로구 종로2가 84-1 지하)
전시작가 박경순

보는 것과 보이는 것
그 사이 가슴이 있다
한순간 느낌이 끼어든다 〈중략〉

분주한 일상을 정리하는
초저녁이거나 어둠이 내려오는 때
어슬렁거리던 그림자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 귀기울여 본다

아련하여 아리다 〈작가노트 중에서〉

Gallery 투고 안내

Gallery에 게재된 사진전시회는 사진전문 잡지인 월간 한국사진에서 본 협회 회원들 뿐 아니라 사진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사진전시를 소개하여 직접 관람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게재되는 사진전시회는 본 협회 회원이라면 무료로 진행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Gallery 사진전시회 올리는 방법

- 대표작 1~2점, 간략한 작가노트 A4 1/3분량.
- 전시제목, 전시장소, 전시날짜, 전시작가 순으로 작가노트에 삽입하여 제출요망.
- 데이터 올리는 곳
: 웹하드 접속 후 아이디 kpask / 패스워드 kpask – 무료 갤러리 투고 폴더에 투고자명 폴더 생성 후 업로딩
: 본 협회 이메일 koreapask@daum.net로 무료 갤러리 투고자명으로 데이터 업로딩
- 업로딩 일자는 악월 게재 희망시 전월 3번째 주 금요일 이전까지 데이터 업로딩 요망
(ex. 2월호 게재 희망시 1월 18일 이전까지)
- 단, 투고원고가 너무 많을 시 임의 편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게재 문의. 02-2655-3131

제3회 장노출 전국 사진대전 *

장노출 사진 예술의 발전과 사진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국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요강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장노출(30초 이상)로 촬영한 미발표 작품
작품규격	11" x 14"(흑백 및 컬러)
출품요령	화제 · 촬영장소 · 노출시간 · 이름 · 주소 · 연락처 기입
출 품 료	1인당 3만원(4점 이내)
접수마감	2024년 5월 24일 도착분까지
출 품 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75번지 한국예총 증평지회
심사일시	2024년 5월 26일 예정
심사발표	한국사협 및 사협증평지부 홈페이지 www.paskjp.net

* 시상내역

대 상	1점 한국예총 증평지회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우 수 상	2점 벤로코리아 대표 상장 및 벤로 TMA 48cx1 카본 삼각대(70만원 상당)
특 선	입선작의 10% 이내 사협 증평지부장 상장 및 벤로 자석필터 ND1000 또는 64 1개(12만원 상당)
입 선	출품수의 20% 이내 선정, 입상작 포함 한국예총 증평지회장 상장
초대작가상	사협 금뱃지
시상전시	증평 문화원 갤러리

* 초대작가제도

대상 5점,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 총 15점 이상일 때는 초대작가로 추대하여 본 대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초대작가증을 부여하고, 본 사진대전 심사자로 위촉할 수 있음
구비서류 사진대전(초대작가)지정 신청서 1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상장 복사본, 명함사진 2매

* 유의사항

- 입선·입상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선·입상될 경우 상권이 취소
※사협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동안 한국사협 입회 유보
- 입상·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 입상·입선 작품은 발표 후 5일 이내 jppask@naver.com로 이미지 파일 제출
- 대상·우수상은 행사 발표 후 7일 이내 작품규격 16" x 20"로 인화하여 제출
- 접수문의 : 한국예총 증평지회 043-835-3970
지회장 010-8530-3115, 사무국장 010-5459-0361

제49회 影像의 足 사진콘테스트

공 모 요 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천지부에서는
제49회 영상의 적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하오니
전국 사진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48회 금상
이희성 | 눈이 오는 날

응모요령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품

흑백, 칼라 11x14"(규격외반은 심사에서 제외)

작품이면에 출품표부착 작품명 / 주소 / 우편번호 / 성명 / 전화번호 기재

출품료 및 출품수

1인당 4점이내 30,000원 (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있음)

(출품자전원 입상 및 입선작 수록한 작품집 증정)

접수처

(14727)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B1

한국사진작가협회부천지부

자세한사항문의 : (032)715-4681, FAX : (032)325-1567

2024년 3월 1일 ~ 3월 31일 (소인유효)

심 사

일시 및 장소

2024년 4월 6일(토) 오후 1시 부천시청 3층 대강당

발표일

2024년 4월 8일(월) <http://www.artbucheon.com>

시상 및 전시

시상식

2024년 4월 27일(토) 오후 2:00 /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전시일시 및 장소

2024년 4월 24일(수) ~ 4월 29일(월) (6일간) /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기타

① 본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입상, 입선작에 한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복제, 전시, 배포 등 2차적 저작권을 갖는다. (입상작은 원판 필름 및 파일(긴변이 3000픽셀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상권 취소)

이메일 : facokpc@hanmail.net

② 낙선작품 반출은 심사후 즉시 개별반송 (작품집은 전시후 발송)

③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이중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취소는 물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입회자격이 7년 이하의 기간동안 유보됨.

④ 초상권분쟁시 출품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⑤ 금상과 은상 수상작은 20x24" 인화된 작품을 발표 후 10일내 제출 하여야 함.

시상

금 상 : 1점 부 천 시 장 상 / 상장 및 부상(3,000,000원)

은 상 : 1점 부천시의회 의장상 / 상장 및 부상(1,000,000원)

은 상 : 1점 예총 부천지회장상 / 상장 및 부상(1,000,000원)

동 상 : 3점 사협 부천지부장상 / 상장 및 부상(각 500,000원)

가 작 : 5점 사협 부천지부장상 / 상장 및 부상(각 100,000원)

장려상 : 5점 사협 부천지부장상

입 선 : 출품수의 20% 이내 사협 부천지부장상

제37회 충주전국 사진공모전

“
육추(育雛)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 육추(育雛) :
알에서 깐 새끼를 키우는 것

접수마감
2024년 3월 14일
(도착분)

작품내용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전국 사진인
작품자격	11" × 14" 컬러 및 흑백사진
작품규격	1인 4점 이내
출 품 수	1인 20,000원
출 품 료	작품 뒷면에 제목,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출품표 부착
출품방법	접수마감 2024년 3월 14일 (도착분)
접수마감	(우 27388) 충북 충주시 관아5길 10 (예총회관 2층)
접 수 처	지부장 010-9688-3357, 사무국장 010-6296-2560
문 의	2024년 3월 중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충주지부 카페(https://cafe.daum.net/cjpask) / 개별통지 하지 않음
심사발표	2024년 4월 중 추후 공지
시상식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2점 : 충주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동상 3점 : 충주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가작 5점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주지회장 상장 ·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주지부장 상장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주지부장 상장(출품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시상내역	◆◆ 출품 유의사항 : 육추(育雛)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함 ◆◆ · 금, 은, 동 입상자는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16" × 20" 사진을 인화 제출하여야 함. · 입상 및 입선작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작품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E-mail : billssun@naver.com) ·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가 책임지며,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고 사용권은 충주지부에 귀속되어 공익적 사업에 사용 할 수 있음. · 출품작이 기발표작 및 유사작으로 판명 시 상권을 취소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함. · 출품작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시 종료 후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개별 발송함. · 입상 및 입선작은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으며 판단여부는 주최측 결정에 따른다.
기타사항	

제20회 당진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2024년 3월20일(수) 당일소인유효

작품내용	제한없음
작품자격	1인당 20,000원
작품규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으로 국내·외 미발표 작품 흑백 및 컬러 11" × 14"에 한함(패널불요)
출 품 수	1인당 4점이내
접 수 처	(우. 31776)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172 (사)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 지부장 010-5432-5656/사무국장 010-3398-4499 TEL.(041)357-4567, FAX.(041)357-4567
작품요령	작품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기입
접수마감	2024년 3월20일(수) 당일소인유효
심사발표	2024년 3월27일 예정(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	금상 1점-(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품(해나루쌀30kg 1포) 은상 2점-당진시장·당진시의회 의장 상장 및 각 상품(해나루쌀20kg 1포씩) 동상 3점-(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및 각 상품(해나루쌀10kg 1포씩) 가작 5점-(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장려 5점-(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입선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출품수 20% 이내, 입상작 포함)
전시장소	당진문화예의전당 전시관
전시기간	4월중 예정
작품반출	입상, 입선 작품은 본 지부에 귀속되며, 낙선작품은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반송함. - 출품자 전원에게 컬러 작품집 증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기 타	- 선정된 작품은 당진시와 사협 당진지부에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기 발표된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 될 경우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상장 을 즉시반환, 회원은 징계하며 비회원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자격이 7년간 유보됨.

2024 제38회 창원전국 사진공모전

CHANGWON NATIONAL PHOTO CONTES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에서는 고향의 봄 축제 일환으로 제38회 전국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작품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공정한 공개 심사로 하겠습니다.



작품내용 자유작 (유사작 및 합성사진으로 판명될 시 취소함)

심사일시 2024년 3월 24일 (일) 오후1시

응모자격 전국사진 애호가

심사장소 창원문화원 지하2층 공개 심사

작품규격 11 "x 14" 사진 (흑백 또는 칼라) 4점 이내

심사발표 2024년 3월 25일 이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및 협회 창원지부 홈페이지 게재 (www.paskcw.net)

출품사항 작품 뒷면에 성명, 제목,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기재

전시일시 2024년 4월 16일 ~ 4월 22일

응모기간 2024년 3월 22일 (금) 도착분

전시장소 성산아트홀 제1전시장

접수료 1인당 2만원

시상식 2024년 4월 17일 (수) 오후 6시 30분
성산아트홀 제1전시장

접수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39번길 19-22
(용호동, 창원문화원) 4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우 51431) T. (055) 283-1014
지부장 010-3561-4772 / 사무국장 010-2845-0414

시/상/내/역

금상 1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가작 5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및 부상

은상 2명 : 한국예총 창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30만원

장려 5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동상 3명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10만원

입선 : 총 출품자의 20%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기/타/사/항

- 저작권/저작물 이용 :** 입상·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해 향후 5년간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도서출판 등 공익사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사협입회유보, 초상권은 출품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 불참시 상금·부상은 불우이웃돕기 기탁합니다. (대리 수상 가능)
 - 컴퓨터그래픽, 지나친 색상 조정은 입상 취소됩니다.
- 특별사항 :** 작품집을 출품자 전원에게 보내 드립니다. / 사협 입회 점수 있음.
- 작품반출 :** 낙선작은 전시 종료 후 개별 반송함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후원 : 창원특례시, 한국예총 창원지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 Canon 캐논 창원점, 서울이비인후과